

1993년 이후 정치학 분야에 있어서 한국학의 흐름들과 특징들*

김 학 준 | 동아일보사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연구동향에 대한 문헌 조사이다. 이 논문은 1993년 2월에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7년 8월까지 정치학 분야에 있어서 한국학의 흐름들과 특징들을 단행본과 논문을 중심으로 살폈다. 이 문헌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들이 추출됐다. 첫째, 주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둘째, 연구가 더욱 전문화되고 있다. 셋째, 한국정치학계의 학문적 수준이 세계적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넷째, 시대적 및 국가적 과제들에 진지하게 대응해 왔다. 다섯째, 학제적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다.

주제어: 한국정치, 정당정치, 의회정치, 정치적 의사소통, 민주화, 남북통일, 남북정상회담, 북한의 정치와 대외관계, 해방 3년사, 한국정치학사, 노동정치학

I. 머리말

이 논문은 1993년 2월에 김영삼정부가 출범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약 14년 6개월에 걸친 시기에 한국의 정치학계가 쌓아올린 한국학 연구실적을 연구주제들을 중심으로 소개하려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문헌조사를 통해 연구의 동향들과 특징들을 밝히고자 한다. 항목 설정의 순서는 대

* 이 논문은 2007년 8월 23일 부산광역시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한국정치학회 주최로 열린 「한국학 세계대회 2007」에서 발표됐다. 필자는 이 논문을 약간 보완한 뒤 한국정치학회의 동의를 얻어 이 논문집에 게재한다.

체로 그 주제가 두드러지게 등장한 계기에 맞췄다.

여기서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는 필자의 전공 밖의 분야여서 제외시켰다는 점이다. 둘째, 평화와 안보 및 통일 그리고 국가발전 전략 등에 관한 연구들은 그 수가 워낙 많아 제한시켰다는 점이다. 셋째, 필자의 독서 범위와 양의 제한 때문에 저술의 수월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토론되지 못한 경우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이 고의적이지 않은 예외들에 대해 앞으로 반드시 보완하고자 한다.

II. 민주화 또는 탈권위주의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민주주의론

1993년 2월 25일에 출범한 김영삼정부는 스스로 문민정부라고 일컬었다. 바꿔 말해, 그 이전의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정부”들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그 정부들 이전의 이승만 “독재정부”와도 구별된다는 뜻이었다. 그러한 차별화 시도는 자신으로부터 한국에서는 정통성을 가진 정부가 시작됐다는 스스로의 평가에 근거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김영삼정부는 자신이 1919년 4월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직접 계승했다고 선언했다.

김영삼정부의 출범을 문민정부시대의 개막으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권위주의체제의 민주주의체제로의 전이(轉移)를 의미했으며 따라서 두 체제들을 전이학(轉移學: transitionology)의 관점에서 비교하게 만들었다. 당연히 한국정치에 있어서 권위주의체제 그 자체에 대한 연구가 잇달아 출판됐다. 박광주 교수의 『한국 권위주의 국가론: 지도자본주의체제하의 집정관적 신중상주의 국가』(인간사랑, 1992)와 한용원 교수의 『한국의 군부정치』(대왕사, 1993) 등이 그 보기들이었다.

탈권위주의화와 민주화에 관한 연구 역시 활발히 진행됐다. 이 주제와 관련해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저서는 최장집 교수의 『한국민주주의의 이론』(한길사, 1993)이다.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주로 제3부에서 권위주의체제의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을 다루면서, 그 과정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¹⁾ 그는 『한국민

1) 손호철 교수는 이 책을 “1980년대 말과 90년대 초의 이론적 논쟁 속에서 한국의 정치학, 아니 한국 사회과학의 성과를 대표하는 저작이다.”라고 평가했다. 손호철, 「최장집:

주주의의 조건과 전망』(나남출판, 1996)에서 이 주제를 다시 다루면서 “반(半)이행” 또는 “불균등한 이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았다.²⁾ 이어 손호철 교수는 『전환기의 한국정치』(창작과비평사, 1994)와 『해방 50년의 한국정치』(새길, 1995)를 잇달아 출판하면서, “이행”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뤘다.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관한 논쟁은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 안청시 교수와 진덕규 교수가 공편한 『전환기의 한국민주주의, 1987-1992』(법문사, 1994), 임혁백 교수의 『시장·국가·민주주의: 한국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나남출판, 1994) 및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 평가와 전망”(한배호 편, 『한국의 민주화와 개혁』, 세종연구소, 1997), 길승흠 교수 외 공저 『한국현대정치론』(법문사, 1995), 이정복 교수의 『한국정치의 이해』(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및 『한국의 정치적 과제』(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한배호 교수 편, 『한국의 민주화와 개혁』(세종연구소, 1997), 윤상철 교수의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이행과정』(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박기덕 박사 편, 『한국민주주의 10년: 변화와 지속』(세종연구소, 1998), 이강로 교수의 “한국에서 진보적 노동운동의 성장과 민주주의 공고화의 진행: 1990-1999”(『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3호, 1999년 가을) 등이 그 보기들이다.

언론인 류근일 박사는, 자신의 1994년도 서울대학교 정치학박사 학위논문 “제도외적 반대세력의 형성과정과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60-70년대 비통상적 정치참여 사례들을 중심으로”를 바탕으로, 『권위주의체제하의 민주화운동 연구: 1960-70년대 제도외적 반대세력의 형성과정』(나남출판, 1997)을 출판했다. 이 책은 1987년의 6월 항쟁을 계기로 전개되기 시작한 그 이후의 탈권위주의화와 민주화를 다루지는 않았다. 부제가 말해주듯, 이 책은 박정희정부의 제3공화정과 제4공화정을 “독재병영 국가의 완성”이라고 파악하면서 거기에 대항해 “제도외적 반대세력”이 형성되고

한국민주주의의 이론(1993)』, 동아일보사 신동아 편집실 편, 『21세기를 움직일 화제의 명저 100선: 신동아 2002년 신년호 특별부록』(서울: 동아일보사출판국, 2002), 175-177쪽.

2) 전상인 교수는 이 책에 대한 서평을 『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4호(1996년 겨울), 491-496쪽에 기고했다. 서평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은 좁게는 김영삼정부의 성격을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읽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귀중한 학문적 업적이다. 그러나 보다 넓게는 오늘의 시점에서 1980년대 이후 세계사의 흐름을 주도한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을 재평가하기 위한 필독서로서의 가치도 동시에 지닌다.”(494쪽).

“제도의외적 반대운동”이 전개된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이 책은 권위주의체제의 본질과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권위주의체제가 붕괴된 뒤 전개될 탈권위주의화와 민주화의 방향과 그 과정에 나타날 장애들을 동시에 생각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신진 교수 역시 권위주의체제의 붕괴에 관해 관심을 보여, “집단주의적 정책결정과 의정(議政)의 과격화가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붕괴에 미치는 영향”(『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4호, 2002년 겨울)을 출판했다. 이 논문은 “유신정치체제의 붕괴과정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갈등은 체제동요의 빈도와 강도를 점점 더 증가하게 만드는 구동력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결론지었다. 김성수 교수는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한국 중산층의 역할: 민주화운동 참여동기에 대한 분석”(『국제정치논총』, 제43집 제1호, 2003년 4월)을 통해 1987년 6월항쟁 당시 중산층이 수행한 역할을 분석했다.

III. 정부형태와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한 한국정치론

권위주의체제로부터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은 기존의 정부형태와 정부구조 및 정치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때때로 중요한 변화를 유발했다. 이 점은 정부형태와 정부구조 및 정치체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를 분석했던 기존 저술들의 수정증보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안병만 교수의 『한국정부론』(다산출판사, 1985년 초판, 1989년 제2증보판, 1993년 제3증보판, 1999년 제4증보판), 김호진 교수의 『한국정치체제론』(박영사, 1990년 초판, 1992년 전정2판, 1993년 전정3판, 1994년 전정4판, 1995년 전정5판, 1996년 전정6판) 등이 그 사실을 말해주었다.

한국정치론의 기본적인면서 필수적인 교과서들이었던 이 저서들 이후 이 분야에서 논문들이 잇달아 발표됐다. 이명남 교수의 “한국에서 대통령제 적실성”(『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4호, 1996년 겨울), 양동훈 교수의 “한국대통령제의 개선과 대안들에 관한 재검토”(『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3호, 1999년 가을), 장훈 교수의 “한국 대통령제의 불안정성의 기원: 분점정부의 제도적·사회적·정치적 기원”(『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4호, 2001년 겨울) 등이 대표적 보기들이라고 하겠다.

다른 한편으로, 헌법이 국가형성과 정치체제의 성격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대

한민국의 헌정사를 서술한 대표적 저서는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엮음, 『한국정치와 헌정사』(한울아카데미, 2001)이다. 집필에 김석근·김일영·김태일·김홍우·손희두·윤대규·이완범·이정식(李廷植) 교수 등이 참여했다.

IV.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및 정치교육에 대한 연구

정치적 정향과 신념체계 및 가치관 등을 중심으로 한 정치문화는 정치체제의 환경을 형성하며 동시에 정치체제의 형성과 유지 및 변화에 영향을 준다. 이 주제와 관련해, 어수영 교수와 한배호 교수는 “한국정치문화의 변화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3호, 1996년 가을)를 출판했고, 박종민 교수는 “은정주의 정치문화와 권위주의 통치의 정당성”(위와 같음)을 출판했다. 이어 전경옥 교수는 『정치·문화·이데올로기』(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1997)를 출판했고, 마인섭·장훈·김재한 교수는 “한국에서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의 등장과 사회적 균열구조의 변화”(『한국과 국제정치』, 제13권 제2호, 1997년 가을-겨울)를 출판했으며, 어수영 교수는 “한국인의 가치변화와 지속성 그리고 민주화”(『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3호, 1999년 가을)와 “가치변화와 민주주의의 공고화: 1990-2001년간의 변화 비교연구”(『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1호, 2000년 봄)를 출판했고, 이현출 교수는 “한국 국민의 이념성향: 특성과 변화”(『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2호, 2005년 여름)를 출판했다.

한 정치체제의 구성원들을 지배적 정치문화로 유도하는 기제(機制)가 정치사회화이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출판된 저술들을 확인하지 못했다. 다만 정치사회화에 연관된 주제인 정치교육에 관한 연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영래·김도종·김옥 교수는 “정치학교육개선을 위한 교과과정개발: 실용적 가치와 경쟁력강화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5호, 2003년 겨울)를 출판했으며, 양동훈 교수는 “정치학 입문과목의 실태와 개선 문제: 한국과 미국의 비교”(위와 같음)를 출판했다.

V. 근현대사 해석에 있어서의 학제적 연구

한[조선]민족의 근현대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은 아무리 늦게 잡는다고 해도 197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지식인사회에서 공개적인 형태로 또는 비공개적인 형태로 전개됐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김운태·신복룡·우철구·이달순·이우진·이택휘·한홍수·홍순호 교수 등 한국의 정치사와 외교사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1984년에 한국정치외교사학회를 출범시켰으며, 『한국정치외교사논총』을 발간해왔다.

그런데 김영삼정부가 대한민국 제1공화정이 수립된 이후에 수립된 모든 정부의 정통성을 사실상 부인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모체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논리 위에서 자신만이 이 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선언함으로써, 그리고 그 선언의 연장선 위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시작함으로써, 기존의 논쟁은 공개적인 수준에서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그 이후 논쟁을 유발시키는 여러 다른 요인들이 추가되면서 이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단순화시켜 말한다면, 1970년대 중반 이후 그리고 특히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이른바 수정주의적 또는 “좌파적” 역사인식이 지식인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했다. 김영삼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많은 항일독립운동단체들 가운데 하나로, 심지어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보다 훨씬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는 일부 “좌파적” 해석에 대한 정당한 비판으로 평가될 수 있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 이전에 존속한 역대 정부들 가운데 단명했던 윤보선 — 장면정부를 논외로 하고 모두를 독재정부들과 군사정부들로 성격규정하고 매도한 기초 위에서 기존의 “제도외적 반대세력” 가운데 일부를 끌어들이어 부분적으로 “좌파적” 성향을 나타낸 것은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출발한 전통주의적 또는 “우파적” 역사인식의 약화에 이바지했다는 비판을 보수우익세력으로부터 받았다.

김영삼정부는 그러한 비판에 직면해 빠르게 “좌파적” 성향을 스스로 버리면서 본래의 “보수우파적” 성격으로 복귀했으며, 그러한 결과로 한[조선]민족의 근현대사 해석에서 수정주의적 역사인식을 약화시키고 그 자리 위에 전통주의적 역사인식을 확립시키는 노력들을 보이기에 이르렀다. 그 노력들의 대표적 보기가 1997년

4월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산하에 현대사연구소를 개설한 것이었다. 한국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한 한홍수 교수가 소장을 맡았던 이 연구소는 이 연구소의 편집 아래 1998년에 『한국현대사의 재인식』(도서출판 오름) 전6권을 출판했다.³⁾ 한홍수·홍순호·이우진·신복룡·박광주·김도중·김영명·김영수·유병용·이완범·박찬표 교수 등 약 20명의 한국정치학회 회원들이 집필에 참여한 이 책들은 대체로 수정주의적 역사인식과는 일정하게 거리를 둔 또는 상대적으로 전통주의적 입장에 가까운, 그러나 학문적으로 객관적인 논문들로 구성됐다. 이 연구소는 1998년 6월에 자신의 기관학술지로 반연간지 『한국현대사연구』를 창간했다. 정치학자로는 백운선·이종석·전상인·정운재 교수 등이 참여했다. 그러나 이 논문집은 제2호로 종간됐다.

확실히 김영삼정부의 출범이 조성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은 한[조선]민족의 근현대사에 대한 논쟁을 새삼 자극했다. 당연히 한국의 역사학계는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주도했으며, 뛰어난 연구결과들을 쌓아올렸다. 특히 1986년에 개소한 사단법인 역사문제연구소가 1987년에 창간한 『역사비평』(1988년 여름부터 계간지)과 1993년에 발족한 한국근현대사학회가 1994년에 창간한 계간지 『한국근현대사연구』는 이 분야에 관해 기존의 통설들을 재검토하게 만들거나 수정하게 만든 논문들을 잇달아 출판했다. 『역사비평』의 경우, 조선의 공산주의운동에 대한 깊이있는 논문들을 게재했으며 해방 이후 남한의 기성정치질서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논문들을 게재했다.

역사학계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치학계는 역사학자들과 학제적 협력을 통해 이 주제의 연구를 진전시키는 데 일정하게 이바지했다. 정치학자들은 우선 대한제국을 포함한 조선왕조 말기에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국내외 정세에 대해 가졌던 인식에 대한 연구들을 적잖게 생산했다. 이호재 교수는 『한국인의 국제정치관: 개항후 100년의 외교논쟁과 반성』(법문사, 1994)에 유길준과 민영환을 비롯한 조선왕조 말기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의 국제정치관을 포함시켰으며, 전복희 교수는 『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구한말을 중심으로』(서울: 한올아카데미,

3) 제1권은 『해방정국과 미소군정』이고, 제2권은 『정부수립과 제헌국회』이며, 제3권은 『한국전쟁 직전의 한국사회 연구』이고, 제4권은 『1950년대 후반기의 한국사회와 이승만정부의 붕괴』이며, 제5권은 『1960년대의 전환적 상황과 장면정권』이고, 제6권은 『현대사의 흐름과 한국현대사』이다.

1996)에서 제국주의적 성격을 지닌 사회진화론이 조선왕조 말기에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으며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분석했다. 김용구 교수는 『세계관총들의 국제정치학: 동양 예와 서양 공법』(서울: 나남출판, 1997)을 통해 19세기 말에 국제공법을 앞세우며 동양으로 침략해온 서양 제국주의를 상대로 중국과 중국의 영향 아래 놓인 국가들이 예로써 맞선 가운데 결국 희생당하는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러한 시각으로부터의 저술은 국내외에서 이 책이 최초라고 하겠다.

“장(場)의 논리”에 서서 한국인의 눈으로부터 국제관계에 접근한다는 김용구 교수의 학풍을, 또는 김용구 교수의 스승인 이용희 교수의 학풍을, 이어받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의 “자아준거적” 학풍은 후학들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조선왕조 말기의 대표적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의 국제정치에 대한 인식체계를 깊이 파고들었으며, 그리하여 장인성 교수는 “토포스와 아이덴티티: 개국기 한일 지식인의 국제정치적 사유”(『국제정치논총』, 제37집 3호, 1998년 8월)를 출판했고, 정용화 교수는 자신의 1998년도 정치학박사학위논문 “유길준의 정치사상연구: 전통에서 근대로의 복합적 이행”을 바탕으로 “유길준의 ‘양절’ 체제론: 이중적 국제질서에서의 ‘방국의 권리’”(『국제정치논총』, 제37집 3호, 1998년 8월)를 출판했으며, 김현철 교수는 “박영효의 근대국가 구상에 관한 연구”로 1999년에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거기에 기초해 “박영효의 『1888년 상소문』에 나타난 민권론의 연구”(『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4호, 1999년 겨울)를 출판했다.

한말의 선각자 서재필은 여전히 중요한 연구주제들 가운데 하나였다. 정진석 교수는 『독립신문·서재필 문헌해제』(나남출판, 1996)를 출판했으며, 백학순·신복룡·신용하·유영익·이택희·홍선표·Vipan Chandra 교수 등은 『서재필과 그 시대』(서울: 서재필기념회, 2003)를 공저했다.

한[조선]민족의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는 1995년에 해방과 분단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정치학계의 경우, 한국정치외교사학회는 1995년 5월 26-27일에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현대한국의 정치와 외교: 반세기의 성찰”이라는 제목으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그 결과를 이우진 교수와 김성주 교수의 공편 아래 『현대한국정치론』(서울: 사회비평사, 1996)으로 출판했다. 박찬표 교수는 “한국의 국가형성: 반공체제 수립과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 1945-1948”로 1995년에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이 논문에 대조되게 류길재 교수는 “북한의 국가건설

과 인민위원회의 역할, 1945-1947”로 1995년에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찬표 박사는 자신의 논문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미군정기 자유민주주의의 초기제도화』(고려대학교출판부, 1997)를 출판했다. 백영철 교수는 『제1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 의회정치를 중심으로』(나남출판, 1995)를 출판했으며, 『제2공화국과 한국민주주의』(나남출판, 1996)를 편저했다. 김성주·김영명·김영식·김용욱·양성철·유병용·이달순·이택희·홍순호 교수 등은 『한국현대정치사』(집문당, 1997)를 공저했다.

한국정치사 전공학자 임영태(林永泰)는 『대한민국 50년사』(들녘, 1998) 전2권을 출판했다. 제1권(『건국에서 제3공화국까지』)과 제2권(『유신정부에서 국민의정부 탄생까지』)으로 구성됐다. 그는 이어 『북한 50년사』(들녘, 1999)를 출판했다. 고유환 교수가 감수한 이 책은 제1권(『해방에서 천리마운동까지』)과 제2권(『주체사상의 정립에서 김정일시대까지』)으로 구성됐다.

해방과 분단 50주년을 계기로 한[조선]민족의 근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동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재조명,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조명이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분단주의의 산물로 파악하고 따라서 이승만 대통령을 분단주의자로 매도하던 1970년대 후반 이후의 분위기에 대한 반론의 대두를 의미했다.

이 동향은 우선 조선일보사에 의해 시작됐다. 이 신문은 1995년에 이한우 기자의 “거대한 생애 이승만 90년”을 연재한 뒤, 그 연재물을 묶어 같은 해에 같은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판했다.⁴⁾ 조선일보사는 또 1995년에 “이승만과 나라세우기 특별기획전”을 열면서, 『이승만과 나라 세우기』라는 소책자를 출판했는데 여기에 이택희 교수는 “거인의 생애 90년”을 기고했다.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 노력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는 학계에 의해 뒤따라졌다. 유영익 교수는 『이승만의 삶과 꿈: 대통령이 되기까지』(중앙일보사, 1996)를 출판한 것이다. 이 주제는 제13항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

4) 저자는 이승만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자료들 가운데 하나로 활용했던 김원용(金元容: Warren Y. Kim)의 『재미한인50년사』(Reedley, C.A.: Charles Ho Kim, 1959)의 저자가 이승만의 정적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상기시켰다. 292-293쪽.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재간됐다. 김원용 지음 손보기 엮음, 『재미한인 50년사』(서울: 혜안, 2004).

VI. 제1차 북핵위기와 한국외교에 관한 연구

김영삼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993년 3월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탈퇴할 의사가 있음을 발표함으로써 이른바 제1차 북핵위기가 발생했으며, 미국의 클린턴행정부는 곧바로 북한과의 협상에 들어갔다. 그 결과 1994년 10월에 두 나라는 제네바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다. 자연히 한국정치학회·한국국제정치학회·한국세계지역학회⁵⁾·신아세아질서연구회를 비롯한 학회들은 물론이고 한국의 외교와 안보 및 평화에 관한 국제연구소들과 대학연구소들은 북핵위기의 본질, 북핵위기의 해소를 위한 한국의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의 관계,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진행된 일련의 회담들에 대해 학문적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 가운데, 외무부(1998년 이후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 통일부 산하 민족통일연구원(1999년 이후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 국방연구원,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남북평화통일연구소 등이 이 주제들에 관한 연구들을 뒷받침하고 출판했다. 특히 한국정치학회의 계간지 『한국정치학회보』, 한국국제정치학회의 계간지 『국제정치논총』, 한국세계지역학회의 논문집 『세계지역연구논총』, 신아세아질서연구회의 논문집 『신아세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계간지 『한국과 국제정치』와 『동북아연구』 및 *Asian Perspective*, 국방연구원의 정기학술지 『국방논집』 및 반년간지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의 계간지 *Pacific Focus*, [민족]통일연구원의 연간지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및 반년간지 『통일정책연구』, 남북평화통일연구소의 계간지 *Korea and World Affairs*, 세종연구소의 계간지 『국가전략』, 한국학술연구원의 계간지 *Korea Observer*, 재단법인 대륙연구소의 계간지 『북한연구』 등은 이 주제들에 관해 참으로 많은 논문들을 출판했다. 이 주제들에 대해 국내에서는 강성학·고유환·곽태환·구갑우·김규륜·김동성·김병기·김성환·김영식·김태우·김학성·남창희·문정인·박광희·박명림·박영호·박태규·백종천·서재

5) 이 학회는 1979년에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로 출발했다. 이 단체는 1990년에 한국사회주의체제연구협의회로 개명했고 1992년에 한국지역연구협의회로 개명했으며 1995년에 한국세계지역연구협의회로 개명했고 2000년에 한국세계지역학회로 개명했다.

진·서주석·소치형·송대성·송영선·송종환·신정현·안인해·유영철·유현석·이상우·이석수·장덕준·전인영·정진영·정종욱·최성·한승주·홍관희 교수 등 북한학전공학자들과 국제정치학자들이 이 학술지들에 기고했다.

이 과정에서 핵전문 국제정치학자 김태우 박사는 『한국핵은 왜 안 되는가: 김태우의 핵주권이야기』(지식산업사, 1994)를, 언론인 남찬순 박사는 『평양의 핵미소: 마침내 밝혀지는 핵협상의 전모』(자작나무, 1995)를, 그리고 정옥임 교수는 『북핵 588 일!: 클린턴행정부의 대응과 전략』(서울프레스, 1995)을, 각각 출판했다. 이어 송요택 박사는 제네바협정 그 자체를 핵과학자의 입장에서 분석한 모노그래프 *Yo Taik Song, US-DPRK Agreed Framework and Implementation* (Seoul: The Sejong Institute, 1998)를 출판했다.

신옥희 교수는 제1차 북핵위기의 해소를 위한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상을 남한의 북방정책 추진과 비교했다. “압박과 배제의 정치: 북방정책과 북핵 1차 위기”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9집 제1호, 2007년 8월)가 그것이다.

VII. 김일성의 사망을 계기로 촉발된 김정일과 북한의 장래 및 한반도 통일에 관한 연구

1994년 7월의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사망, 그리고 그것에 뒤따른 김정일 유신통치체제의 등장은 김정일정권 및 북한정권의 장래에 관해, 그리고 남북한관계 및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정치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을 크게 자극했다. 이 주제들에 관해서도 제6장에서 열거한 연구기관들과 논문집들의 역할이 컸다.⁶⁾

첫째,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많은 저술들이 출판됐다. 이 주제와 관련해,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은 (1) 1996년에 *Peace*

6) 이 시점에서, 언론사들도 북한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들을 출판했다. 동아일보사 신동아 편집실 편, 『김정일북한대백과: 신동아 1995년 1월호 별책부록』(동아일보사, 1995); 조선일보사 월간조선 위음, 『주석궁 비사』(조선일보사출판국, 1994) 등이 대표적 보기들이다.

*Regim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oles of Regional Powers*를, (2) 1997년에 *Crisis Manag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U.S. Responses*를 출판했다. 집필에는 김성한 · 김충남 · 백진현 · 이상우 · 이서항 · 차영구 · 한용섭 · 현인택 교수 등이 참여했다. 세종연구소의 경우, 백학순 박사와 진창수 박사는 1999년에 『“북한문제”의 국제적 쟁점』을 편집-출판했다. 집필에는 박기덕 · 양운철 · 이종석 · 이대우 · 홍현익 박사 등이 참여했다.

둘째,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이른바 강압외교를 벌이면서 수확한 대외행태에 주목한 학자들은 북한의 외교 그 자체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김용호(金用浩) 교수는 『현대북한외교론』(오름, 1996)을 출판했으며, 광태환 · 양성철 · 장경룡 · 최완규 · 한용섭 교수 등은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관계』(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7)를 출판했다.

셋째, 북한의 정치변동 가능성과 장래에 관해 많은 저술들이 출판됐다. 이 주제와 관련해, 민족통일연구원은 캘리포니아대학교(버클리) 동아시아연구소와 공동으로 북한의 변화가능성을 분석-전망한 책을 출판했다. Tae Hwan Ok and Hong Yung Lee (eds.), *Prospects for Change in North Korea* (Berkeley, C.A.: Center for Korean Studies,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and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eoul, 1994)가 그것이다. 집필에는 남궁영 · 서재진 · 유호열 · 전현준 · 정영태 · 허문영 박사 등이 참여했다.

민족통일연구원은 『북한의 변화와 김정일정권의 장래』(민족통일연구원, 1994년 12월)를 출판했다. 서재진 박사와 김병로 박사가 공저한 이 보고서는 김정일정권이 내구력을 지니고 있어 쉽게 붕괴하지 않을 것이며 남북통일은 20-30년이 지나야 실현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 연구원은 자신의 기관학술지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 (1996)를 전적으로 이 주제에 바쳤다. 집필에는 김성철 · 김영운 · 오승렬 · 유호열 · 허문영 박사 등이 참여했다.

개인적 수준에서, 방찬영 교수는 『기로에 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박영사, 1995)을 출판했고, 유석렬 교수는 『북한의 체제위기와 한반도통일』(박영사, 1997)을 출판했다. 각각의 제목이 말하듯, 이 책들은 모두 김정일정권이 구조적 모순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앞의 책이 체제붕괴의 개연성을 강하게 암시했음에 비해, 뒤의 책은 붕괴의 개연성을 말하면서도 신중한 전망을 제시했다.⁷⁾ 백인학 교수는 “김정일체제와 북한의 변화가능성”(동현(東顯) 한승조교수정년기념

논문집간행위원회 편, 『변혁기의 한국정치』, 두레시대, 1995, 213-232쪽)에서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다. [...] 그러나 경제난해결에 실패한다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장래와 관련해, 북한붕괴론과 북한존속론이 맞선 상태에서, 김용호(金容浩) 교수와 이근 교수는 이 이론들을 비교해 Kim Yong-ho and Lee Keun, “An Evaluation of Recent U.S. and Korean Expert Analyses on the Future of North Korea,”를 *The Economics of Korean Reunification*, Vol. 3, No. 1 (August 1998), pp. 116-136에 발표했다.

넷째, 북한의 인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 예컨대, 한국방송공사와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은 1995년 11월 28일에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인권실상과 국제사회의 역할”이라는 제목 아래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같은 제목 아래 논문집을 발간했다. 이 학술회의에서 양성철 교수는 “On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를 발표했다. 그는 “최근의 모든 보고들은 북한인민이, 사실상 굶고 있고 영양실조 및 그것에 관련된 질병들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는 등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다섯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지면서 일차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주제가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은 1995년 1월에 월간지 『통일경제』를 창간했으며, 1996년 10월에 Hyundai Research Institute라는 영문이름 아래 계간지 *The Economics of Korean Reunification*을 창간했다. 이 논문집들에는 정치학자로서는 김희연·김연철·남창희·문정인·임용순·전성환 교수 등이 기고했다. 사단법인 북한경제포럼은 1995년 12월에 『북한경제논총』을 창간했는데, 이 논문집에는 김연철·김영운·남성욱·동용승·오승렬 박사 등 북한 전문학자들이 북한경제 그 자체와 남북경제협력을 분석한 논문들을 게재했다. 남궁영 교수는 “북한의 외자유치정책과 남북한 경제협력”(『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2호, 1998년 여름)을 출판했으며, 경제학자들인 고일동(高日東)·연하청·이태욱 박사는 『경협을 통한 남북한관계발전의 길』(오름, 1996)을 출판했다.

여섯째, 한반도 통일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지면서, 독일 통일로부터 교훈을 얻으

-
- 7) 철학자 신일철 교수는 『<평양의 봄>은 오는가: 북한의 붕괴나 아니면 개방이나』(YBM-시사영어사, 1999)를 출판했다. 이 책은 신 교수가 1998년 3월부터 8월까지 KBS 사회교육방송의 「노동당 간부들에게」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송한 원고들을 모은 것이다. 신 교수는 북한이 개방하지 않는다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려는 노력이 다시 나타났다. 이 주제와 관련해 여러 저술들이 출판됐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우선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 뒤 거기서 발표된 논문들을 편집해 출판한 Ku-Hyun Jung, Dalchoong Kim, Werner Gumpel and Gottfried-Karl Kindermann (eds.), *German Unification and Its Lessons for Korea* (Seoul: 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ersity, 1996)를 지적할 수 있다. 집필에 한국에서는 조형·정갑영·이영선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어 한국정치학회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거기서 발표된 논문들을 편집해 출판한 『독일의 통일경험과 남·북한 교류협력방안』(한국정치학회, 1999)을 지적할 수 있다. 집필에는 한국에서는 김국신·박영호·박준영·조동호 박사 등이 참여했다.

일곱째, 북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북한 연구방법론을 둘러싼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토론에는 강정인·박형중·서동만·이종석·최완규 교수 등이 참여했다. 특히 강정인 교수의 “북한연구방법에 대한 새로운 제언”(『역사비평』, 1994년 가을호), 그리고 이종석 박사의 “북한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역사비평사, 2000)는 토론의 심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여덟째, 북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북한의 정치를 설명하는 전문서들 또는 교과서들의 출판이 잇달았다. 대표적인 전문서들로는 우선 이종석 박사의 『조선로동당연구: 지도사상과 구조변화를 중심으로』(역사비평사, 1995) 및 『현대북한의 이해: 사상·체제·지도자』(역사비평사, 1995)를 지적할 수 있다. 앞의 책은 저자의 1993년도 성균관대학교 정치학박사학위논문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과 구조변화에 관한 연구: 주체사상과 유일지도체계를 중심으로”를 보완한 것이며, 뒤의 책은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역사비평사, 2000)로 수정증보됐다. 이어 최완규 교수의 『북한은 어디로: 전환기 ‘북한적’ 정치현상의 재인식』(경남대학교출판부, 1996)을 지적할 수 있다.

대학생들을 위한 교과서들로는 우선 이상우 교수의 『북한정치입문: 김정일정권의 특성과 작동원리』(나남출판, 1997; 개정증보판, 2000)를 지적할 수 있다. 이어 (1) 김창희 교수의 『북한정치사회의 이해』(법문사, 1998), (2) 김경웅·도홍렬·안성호·오일환·장공자·정순원 교수 등의 『신북한개론』(을유문화사, 1998), (3) 이계희 교수와 신진 교수의 『북한체제론』(충남대학교출판부, 1998), (4) 김병로·김성철·김창근·박형중·임강택·전현준·정영태·최진욱·허문영·홍용표 박사 등의 『북한이해의 길잡이: 전환기의 북한사회』(박영사, 1999), (5) 양촌(陽村)민병천박

사고회기념저서간행위원회 (편), 『북한학 입문: 양촌민병천박사고회기념저서』(들녘, 2001)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아홉째, 북한과 남한을 비교하는 저술들이 출판됐다. 양성철 교수는 Sung Chul Yang, *The North and South Korean Political Systems: A Comparative Analysis*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4)를 출판했다. 함택영 교수는 자신의 1996년도 미국 미시건대학교 정치학박사학위논문 “State Power and Armament of the Two Koreas: A Case Study”를 바탕으로, 국문으로는 『국가안보의 정치경제학: 남북한의 경제력 · 국가역량 · 군사력』(박영사, 1998)을 그리고 영문으로는 Hamm Taik-young, *Arming the Koreas: State, Capital, and Military Power* (New York, N.Y.: Routledge, 1999)를 각각 출판했다. 장달중 교수 등은 『분단 반세기의 남북한의 정치와 경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96)를 출판했으며, 전득주 · 최의철 · 신현기 교수 등은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숭실대학교출판부, 2000)를 출판했다.

VIII.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에 대한 연구

1995년은, 1991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선거가 부활된 기초 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선제 실시로까지 확대된 해였다. 지방의회의 의원들과 지방정부의 장들을 동시에 직선하는 선거는 1998년과 2002년 및 2006년에 계속해서 실시됐다. 이것은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선거 및 지방정치 등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시켰다. 그 과정에서 1988년 12월에 노유희 · 최창호 · 김안제 · 정세욱 교수 등이 중심이 돼 창립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이 학회의 논문집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연간지로 시작해 계간지로 발전)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 분야의 출판물들은 초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지방자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1)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법문사, 1994), (2) 지방자치실무연구소, 『한국의 지방자치』(의암, 1995), (3) 김영종, 『지방자치론』(형설출판사, 2000), (4) 정재화, 『한국지방자치론』(대진대학교출판부, 2002), (5) 안청시 · 박찬욱 외 공저, 『한국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나남출판, 2002), (6) 이승종, 『지방자치론: 정치와 정책』(박영사, 2003)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1) 최창호 편, 『지방정부기능론』(삼영사, 2001), (2) 안용식 외 공저, 『지방정부론』(대영문화사,

2001), (3) 이달곤, 『지방정부론』(박영사, 2004)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1) 경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편 최근열 외 공저, 『지방의회론』(학현사, 2001), (2) 정재길, 『지방의회론』전정판(박영사, 2001), (3) 박봉국, 『지방의회과정론』(박영사, 2002)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한국정치학계는 학문적 관심의 초점을 종전의 지방행정으로부터 지방정치와 그리고 미국정치학계의 한 분야인 도시정치(urban politics)로 돌렸다. 도시정치 및 지방정치에 관해서는 강명구 교수가 “지방자치와 도시정치: 행위자중심적 해석을 위한 이론적 연구”(『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3호, 1997년 가을)를, 김만흠 박사가 “지방정치론과 한국 지방정치의 과제”(『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4호, 1998년 겨울)를, 박종민·배병룡·유재원·최승범·최홍석 교수가 “한국의 지방민주주의와 도시정치문화”(『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1호, 2001년 봄)를, 각각 출판했다. 이어 지방자치와 주민참여에 관해서는, 이승중 박사와 유희숙 박사가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접촉”(『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4호, 1999년 겨울)을 공저했으며, 정용길·박명호·호광석 교수가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주민참여효율화 방안』(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3)을 공저했다.

IX. 선거·정당·의회·이익단체·정치개혁·시민운동 등 정치 과정에 대한 연구

1. 정치부패와 정치개혁

국회의원 선거는 1996년(15대)과 2000년(16대) 및 2004년(17대)에 계속해서 실시됐다. 이 과정에서 “고비용 저효율 정치”라는 말에 요약된 선거·정당·정치자금·국회 등에 관련된 기존의 정치적 부패에 대한 비판이 한국정치학회를 비롯한 몇몇 학술단체들과 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들에 의해 제기됐다. 문정인 교수와 모종린 교수가 공편한 『한국의 부정부패: 그 비용과 실태』(오름: 1999), 모종린 교수가 편저한 『한국의 정치자금: 정치자금의 조달 패턴 연구와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동아일보사, 2002), 장수찬 교수가 출판한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결사체 참여(civic engagement), 사회자본(social capital), 그리고

정부신뢰(confidence in political institutions)”(『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1호, 2002년 봄), 그리고 임성학 교수의 “정치자금제도와 정치개혁: 캐나다와 한국의 비교연구”(『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제1호, 2005년 8월) 등은 그들로부터의 그러한 문제제기의 보기들이었다. 그들의 문제제기는 문제제기로 끝나지 않고 정치개혁을 지향하는 시민운동으로 이어졌으며, 한국선거학회와 한국정당학회의 발족으로 이어졌다.

우선 두 학회들에 대해 살펴기로 한다.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된 1991년에 어수영·이남영·박찬욱 교수 등은 한국선거연구회를 발족시킨 데 이어 2002년에 이연구회를 한국선거학회로 발전시켰다. 이어 1992년에 윤정석·이정식(李廷植)·신명순·김용호(金容浩)·최한수 교수 등은 한국정당연구회를 발족시켰으며 윤정석·신명순·심지연 교수 등은 『한국정당정치론』(법문사, 1996)을 편저했고 심지연 교수는 회원들과 함께 이 책을 보완해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백산서당, 2003)를 편저했다. 이 분야의 정치학자들은 2001년에 한국정당연구회를 한국정당학회로 발전시킨 데 이어 2002년에 반연간지 『한국정당학회보』를 창간했다.

선거와 정당 및 국회의 개혁을 비롯해 정치 전반에 걸친 정치개혁의 주제를 가장 전문적으로 다룬 정치학자는 강원택 교수이다. 그는 『정당의 민주적 제도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2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재단법인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2)를 작성한 데 이어,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푸른길, 2003)와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인간사랑, 2005)를 저술했으며, 『세금과 선거: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푸른길, 2007)과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동아시아연구원, 2007)를 편집했다.

정치개혁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문제의식에서 한국정치학회는 『15대 대통령선거와 정치개혁』(1998)을 편집-출판했으며, 구범모 교수 등은 『한국정치사회개혁의 이론과 실제』(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를 출판했고, 신명순·김재호·정상화 교수 등은 “시뮬레이션(Simulation) 분석을 통한 한국의 선거제도 개선방안”(『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4호, 1999년 겨울)을 출판했고, 임혁백 교수는 강원택·고세훈·김수진·김용철·김재한·문정인·박찬욱·박철희·염재호·윤영관·이내영·이신화·이태환·장훈 교수 등과 함께 『IMF체제 이후의 한국정치의 비전과 전략, 새천년 한국 정당 및 NGO의 역할과 전망을 중심으로: 2000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보고서』(한국정치학회, 2000)를 작성했다. 장훈 교수는 “지역주의 경쟁의 전환을 위한

제도개혁의 모색: 대결에서 합의와 수용의 민주주의로”(『한국정당학회보』, 제2권 제2호, 2003년 9월)를 출판했으며, 이성형 교수는 강원택 교수 및 임성학 교수와 더불어 『한국정치 체제개혁: 2004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한국정치학회, 2004)를 작성했고, 강원택·김도중·김영태·박명호·윤종빈·이현출 교수 등은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2005)의 작성에 참여했다. 행정학자들 사이에서는 행정개혁론이 제기됐으며, 그것의 한 산물로 김번용·김동현·김판석 공저, 『한국행정개혁론』(법문사, 1997)이 출판됐다.

정치개혁운동은 일정한 효과를 발생시켰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임성학 교수의 “17대 총선의 선거자금과 정치개혁의 효과”(『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2호, 2005년 여름) 및 전용주 교수의 “후보공천과정의 민주화와 그 정치적 결과에 관한 연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위와 같음) 등이 실증적 분석들을 통해 설명했다.

2. 선거

다음으로, 선거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이 주제에 대해 가장 전문적인 저술들을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출판한 정치학자는 박찬욱 교수이다. 그는 김용호(金容浩) 교수 등과 함께 『4·13총선: 캠페인 사례연구와 쟁점분석』(문형, 2000)을 편집한 데 이어 양기호·조기숙·한우창 교수 등과 함께 『비례대표선거제도』(박영사, 2000)를, 그리고 강원택·김의영·박철희·백창재·안병진·유석진·이정복·이준한·임경훈 교수 등과 함께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 분석』(푸른길, 2005)을 편집했으며, 한상진 교수 등과 함께 『민주정치와 균형외교: 광복 60주년기념 학술포럼』(나남출판, 2006)을 편집하면서 이 책에 “지역균열의 해소와 균형정치: 선거구제 개편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그는 제14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4대 대통령선거, 제15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5대 대통령선거, 제17대 국회의원선거 등을 분석한 논문들도 발표했다. 그 한 보기가 “제14대 대선에 있어서의 유권자의 후보지지에 대한 분석”(『전환기 한국정치학의 새 지평: 준봉 구범모교수 화갑기념논총』, 나남출판, 1994)이며, 다른 보기가 Chan Wook Park, “The Fourteen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A Test for the Ruling Democratic-Liberal Party” (*Korea Journal*, Vol. 33, No. 1, 1993)이다.

박찬욱 교수 밖에 적잖은 수의 정치학자들이 이 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남영

교수는 『한국의 선거, I』(나남출판, 1993)와 『한국의 선거, II: 제15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푸른길, 1998)를 편집했고, 조중빈 교수는 『한국의 선거, III: 199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푸른길, 1999)를 편집했다. 김재한 교수는 “한국선거예측의 방법론적 모색”(『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1호, 1995)과 “한국의 이념성향과 선거정치”(조중빈 편, 『한국의 선거, III: 1998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푸른길, 1999)를 출판했으며, 문용직 박사는 “한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제: 소선거구제와 양당제”(『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1호, 1995)를 출판했고, 황아란 박사는 “선거구특성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 제15대 국회의원선거분석”(『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4호, 1996년 가을)과 “국회의원선거의 당선경쟁과 선거구요인: 제15대 총선 당선자의 선거경쟁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3호, 1998년 가을) 및 “국회의원 후보와 당선경쟁력에 대한 성차(性差) 연구”(『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1호, 2002년 봄) 등을 발표했다.

조기숙 교수는 『합리적 선택: 한국의 선거와 유권자』(한울아카데미, 1996)를, 최한수 교수는 『한국선거정치론』(대왕사, 1996)을, 이숙종 교수는 “정치적 성향과 투표행태”(세종연구소 편, 『제15대 총선 분석』, 1996)를, 강원택 교수는 “대통령선거방식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단순다수제와 결선투표제 방식의 비교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2호, 1997년 가을)와 “Ideology and Voting: The 1997 Sou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Korea and World Affairs*, Vol. 22 No. 1, Spring 1998) 및 “정치적 기대수준과 저항투표: 단순다수제 하에서 제3당에 대한 지지의 논리”(『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2호, 1998년 여름)를, 황수익 교수와 강원택 교수는 “한국 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에 대한 연구”(『의정연구』, 제4권 제2호, 1998)를, 정준표 교수는 “북풍의 정치학: 선거와 북한변수”(『한국과 국제정치』, 제14권 제1호, 1998년 봄·여름)를, 윤중빈 교수는 “한국 국회의원의 지역구활동 정도의 결정 원인분석: 커리어 단계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4호, 1999년 겨울)와 “국회의원과 선거구민의 관계연구: 현직의원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4호, 2002년 겨울)를, 어수영 교수와 박진영 교수는 “한국인의 정치참여의 변화와 지속성: 남성과 여성의 참여 변화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4호, 2001년 겨울)를, 진영재 교수는 『부동층 유권자 행태분석』(집문당, 2002) 그리고 조진만 교수와의 “한국 재·보궐선거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틀 제시와 사례 분석: 김영삼과 김대중 정권기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1호, 2002년 봄)를, 장훈 교수는 “한국의 정치적 대표: 유권자-국회의원의 이념적 대표를 중심으로”(『한국정당학회보』, 제2권 제1호, 2003년 1월)와 “혼합형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한국정치학회보』, 제40권, 제5호, 2006년 12월)를, 그리고 김용호(金容浩) 교수는 강경태·송기도·유재일·윤성이·이현출 교수 등과 함께 『17대 총선 현장 리포트: 13인 정치학자의 참여관찰』(푸른길, 2004)을, 김석우 교수는 “기초단체장 총원과정에 관한 연구: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 결정 모델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1호, 2004년 봄)와 “17대 총선과 정치적 총원: 당선자 결정 모델을 중심으로”(『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제2호, 2006년 2월)를, 그리고 유석진·이현우·이원태 교수 등은 “인터넷의 정치적 이용과 정치 참여: 제17대 총선에서 대학생집단의 매체이용과 투표참여를 중심으로”(『국가전략』, 제11권 제3호, 2005년 가을)를 각각 출판했다.

한국의 선거에 대한 연구는 일본과 미국 및 영국의 선거와의 비교로 확대됐다. 일본과의 비교의 사례는 한국의 임혁백 교수와 일본의 고바야시 요시아키(小林良彰) 교수의 공편 『시민사회의 정치과정: 한국과 일본의 비교』(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2006)이다. 이 책은 일본어로는 경응의숙대학출판회에서 2005년에 출판됐다. 같은 맥락에서, 정상화 교수는 “선거와 화폐공급의 정치경제: 한국과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1호, 1998년 봄)를 출판했다. 미국과의 비교의 사례는 장훈 교수의 “보이는 목표와 보이지 않는 결과: 미국과 한국의 대선후보선출과정의 개혁과 정당구조의 변동”(『의정연구』, 제8권 제2호, 2002년 12월)이며, 영국과의 비교의 사례는 강휘원 교수의 “영국과 한국의 선거구획정위원회: 정치적 환경·운영·개혁방향”(『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4호, 2002년 겨울)이다.

선거와 관련해 토론의 초점들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 주제가 지역주의였다. 이 주제와 관련해, 황태연 교수는 『지역패권의 나라』(무당 미디어, 1994)를, 김만흠 박사는 『한국정치의 재인식: 민주주의 지역주의 지방자치』(풀빛, 1997)를, 이갑윤 교수는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오름, 1998)를, 노병만 교수는 “지역할거주의 정치구조의 형성과 그 원인 분석: 지역감정·지역갈등 개념을 대신하여”(『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1호, 1998년 봄)를, 최영진 교수는 『지역주의이론과 한국정치』(가산, 1999)를, 각각 출판했다. 한국정치학회는 『한국의 지역주의와 해소방안』(1999)을 편집-출판했으며, 백운선 교수는 『호남의 지역지배구조 형성배경: 호남의 정치와 지방정치』

(백산서당, 2001)을 출판했다. 조기숙 교수는 “지역주의 논쟁: 비판이론적 시각에 대한 비판”(『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2호, 2001년 여름)을, 박상훈 박사는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제16대 총선의 사례”(위와 같음)를, 이갑윤 교수는 “지역주의의 정치적 정향과 태도”(『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제2호, 2002년 여름)를, 각각 출판했다.

김세균 교수는 『16대 대선의 선거과정과 의의』(서울대학교출판부, 2003)를 편집했는데, 집필에는 강원택·김만흠·손호철·장훈·정병기·안병준·안부근·이준한·최형익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미 길승흠 교수 및 김광웅 교수와 함께 『한국선거론』(다산출판사, 1987)을 출판했었던 안병만 교수는 자신의 그 이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선거와 한국인의 정치행태』(인간사랑, 2005)를 출판했다.

3. 정당

정당에 관해서는, 정태영(鄭太榮) 교수가 『한국사회민주주의정당사』(세명서관, 1995)를, 이갑윤 교수가 『한국의 민주화와 정당제의 변화』(소화[小花], 1995)를, 호광석(扈光石) 교수가 『한국 정당체계 분석: 제헌 국회부터 제14대 국회까지 한국 정당체계의 환경과 구조』(들녘, 1996)를, 각각 출판했다.

김형준 교수와 유성모 교수가 “유권자의 정당지지 분석”(『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4호, 1996년 겨울)을, 광진영 교수가 “정당체제의 사회적 반영의 유형과 그 변화: 한국·일본·미국의 비교분석”(『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1호, 1998년 봄)을, 정진민 교수가 『후기 산업사회 정당정치와 한국의 정당발전』(한울, 1998)과 “Party-System Change in Post-Democratization Korea: A Partisan Realignment Perspective”(Korea Observer, Vol. 33 No. 1, Spring 2002)를, 김현우 교수가 『한국정당통합운동사』(을유문화사, 2000)를, 강명세 교수가 『한국정당체제의 구조와 변화』(세종연구소, 2001)를, 김용호(金容浩) 교수가 『한국정당정치의 이해』(나남출판, 2001)를, 심지연 교수와 김민전 교수가 “한국 정당의 수입구조 연구: 1997-2000년도 정당 회계보고 자료를 중심으로”(『한국과 국제정치』, 제18권 제3호, 2002년 가을)를, 장훈 교수가 “카르텔 정당체제의 형성과 발전: 민주화 이후 한국의 경우”(『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제4호, 2003년 겨울)를, 그리고 심지연 교수가 『한국정당정치사: 위기와 통합의 정치』(백산서당, 2004)를, 각각 출판했다.

4. 의회

의회에 관해서는, 백영철 교수를 비롯해 심지연·박찬욱·지병문·김현우·박찬표·김민전·임성호·강원택·이병화·김용호(金容浩)·신명순·조기숙·정영국·박동서 교수 등이 집필에 참여한 한국정치학회 편, 『한국의회정치론』(건국대학교출판부, 1999)이 대표적이다. 박재창 교수는 『한국의회행정론』(법문사, 1995)을, 윤영오 교수는 “국회 제도 및 운영의 개선방안”(『의정연구』, 제2호, 1996)을, 박찬표 교수는 “한·미·일 3국 의회의 전문성 축적구조에 대한 비교연구”(『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4호, 1996년 겨울)를, 각각 출판했다. 임동욱 교수와 함성득 교수는 『국회 생산성 높이기』(박영사, 2000)를 공저했다.

5. 이익집단

이익집단에 관해서는 김영래 교수가 편저한 『이익집단정치와 이익갈등』(한울아카데미, 1997)이 대표적이다. 집필에는 김수양·김왕식·김혁래·문태훈·박경태·안병도·정영국·황종성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정희 교수는 (1) “한국이익집단의 4대 지방선거 참여전략”(『의정연구』, 제3권 제1호, 1997), (2) “이익집단 구성원의 정치의식과 정치행태”(『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3호, 1993년 가을), (3) “한국 이익집단정치와 의회”(『의정연구』, 제6권 제1호, 2000), (4) “전환기 이익집단정치 특성과 과제”(민준기 편저, 『21세기 한국의 정치』, 법문사, 2001) 등을 발표했다. 정상호 교수는 “한국 중소기업집단의 이익정치: 중기협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4호, 2002년 겨울)를 발표했다.

행정학자 배응환 박사는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진행되는 상황 아래 정부와 전문 이익집단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정치체제변화에 따른 정부와 경제이익집단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산업정책에 있어서 전경련과 대한상의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2000년에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정부와 전문이익집단의 정책이해, 정치행태, 그리고 이익대변모형”(『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1호, 2002년 봄)을 출판했다.

6. 시민운동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에 대한 선구적 연구로 최장집 교수와 임현진 교수가 공편한 『시민사회의 도전: 한국민주화와 국가·자본·노동』(나남출판, 1993)를 지적할 수 있다. 이어 안병준 교수 등이 공저한 『국가·시민사회·정치민주화』(한울, 1995), 이신행 교수가 집필한 『한국의 사회운동과 정치변동』(민음사, 1997), 이신행 교수와 장동진 교수 등이 공저한 『시민사회운동: 이론적 배경과 국제적 사례』(법문사, 1999), 고상두·김영래·유현석·정영태 교수 등이 집필하고 한국정치학회가 편집한 『한국사회에서 국회와 NGO의 역할』(한국정치학회, 1999)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어 박호성 교수는 “한국의 민주화와 시민운동의 과제”(민준기 편저, 『21세기 한국의 정치』, 법문사, 2001)를 출판했다. 신울 교수는 “한국시민운동의 개념적 위상과 문제점: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2호, 2001년 여름)를 출판했는데, 신 교수는 2001년의 시점에서 한국의 시민운동은 “전성기”를 향한 “과도기”에 있다고 평가했다. 조기숙 교수와 김선웅 교수는 “총선연대의 낙선운동이 16대 총선 투표율을 낮추었나?”(『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1호, 2002년 봄)를, 김병완 교수와 민형정 교수는 “한국 NGO의 역할유형에 관한 경험적 분석: NGO 활동가들의 자기인식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4호, 2002년 겨울)를, 장훈 교수는 “정당의 위기와 대안적 조직의 등장: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사례”(『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3호, 2003년 10월)를, 고상두·곽진영·김영래·김준한·박희봉·오경택·이정희·이현출 교수 등은 김영래 교수의 편집 아래 『NGO와 한국정치』(아르케, 2004)를, 이광희 박사는 “지방시민사회에 대한 비교 사례 연구: 구미시와 창원시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3호, 2004년 가을)를, Hyuk-Rae Kim 교수는 “The Paradox of Social Governance: State, Civil Society, NGOs in South Korean Reform Politics” (*Korea Observer*, Vol. 35 No. 3, Autumn 2004)를, 김의영 교수는 “인터넷을 통한 NGO의 정치참여: 유형과 현황”(『한국과 국제정치』, 제20권 제4호, 2004년 겨울)을, 각각 발표했다.

X. 정치적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

정치적 의사소통과 관련해, 한국정치학계는 국내정치의 시각에서보다⁸⁾ 대외관계의 시각에서 접근한 논문들을 생산했다. 우선 김기정·김용호(金用浩)·정병석 교수는 “김대중정부의 외교정책과 언론: 관계유형의 모색과 사례분석을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 제40집 제4호, 2000년 12월)를 발표했으며, 이정진 박사는 “대북정책 결정과정에 나타난 대통령과 여론의 영향력 변화”(『국제정치논총』, 제43집 제1호, 2003년 4월)를 발표했다. 김재홍 교수는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언론노조와 국민여론의 비교분석”(『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2호, 2003년 여름)을 발표했다.

8) 정치적 의사소통 연구에 있어서 기초적 자료들은 한국의 신문 및 방송의 역사를 다룬 책들이다. (1) 최준, 『한국신문사』(일조각, 1960 초판; 1997 신보판); (2) 김기철(金基喆), 『합수부 사람들과 오리발 각서: 80년 신군부의 언론사 통제합 진상』(중앙일보사, 1993) — 저자는 대구일보사 논설위원 출신으로 문화공보부 홍보담당관 재직 때 합수부 언론반에서 일했다 —; (3) 조맹기(趙孟基), 『한국언론사의 이해』(서강대학교출판부, 1997 초판; 1998 개정증보 2판; 2005 개정증보 3판) 및 『한국언론인물사상사』(나남출판, 2006) — 이 책은 서재필·윤치호·장지연·신채호·이광수·홍명희·안재홍·천관우·최석채·장준하·송건호 등 11명을 다뤘다 —; (4) 김민남(金敏男)·김유원(金有源)·박지동(朴智東)·정대수(鄭大秀) 등 『새로 쓰는 한국언론사』(아침, 1993 초판; 2001 2판); (5) 김민환(金珉煥), 『한국언론사』(나남출판, 1996 초판; 2002 개정판) 및 『미군정기 신문의 사회사상』(나남출판, 2001); (6)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편, 『한국언론 반성문부부터 써라』(해담술, 2003); (7) 한태열, 『한국언론의 구조적 통제와 언론자유: 전문화·관료화 및 노조화의 파고를 넘어』(풀빛, 2002) — 저자는 통제를 정치적 통제·경제적 통제·공중에 의한 통제로 나눠 살폈으며 언론노조의 활동이 언론자유에 이바지했다고 보았다 —; (8) 이채주, 『언론통제와 신문의 저항: 암울했던 시절 어느 편집국장 이야기』(나남출판, 2003); (9)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비상대책특별위원회 (편), 『DJ정권 언론단압백서: 자유언론은 영원하다』(한나라당, 2002); (10) 강준만 외, 『조선일보공화국』(인물과사상사, 1999).

XI. 세계화, 그리고 세계화의 국내적 산물들에 대한 연구

1991년의 걸프전쟁을 계기로 이른바 미국 단극체제가 등장하고 거기에 1993년의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 겹쳐져 이른바 “새로운 세계질서”가 정립되는 것 같았다. 하영선 교수는 김태현 교수와 정진영 교수를 비롯한 국제정치경제학자들과 함께 『탈근대 지구정치학』(나남출판, 1993)을 편저했다. 이어 하영선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생들이 중심이 된 국제관계연구회는 “국제정치와 한국”총서 제3권으로 『세계화와 한국』(을유문화사, 2003)을 출판했다. 윤영관 교수와 배영자 박사가 편집책임 맡은 이 책에 김상배·김영명·김인영·김주홍·김태현·서창록·신연재·양기웅·이근·이종찬·이호철·조현석·하용출·홍성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새로운 세계질서”는 세계화를 의미했다. 1994년 11월부터 김영삼정부는 한국이 세계화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국내의 거의 모든 부문들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여러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김경원 교수와 임현진 교수는 『세계화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나남출판, 1995)을 편집·출판했다. 세계화의 구호가 제시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난 1997년 11-12월에 남한은 외환부족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의 긴급지원 그리고 많은 기업들의 도산과 구조조정 및 실업으로 요약되는 외환-금융위기, 세칭 IMF사태를 겪었다. 이러한 위기상황 속에서 1998년 2월에 출범한 김대중정부는 신자유주의정책에 기초해 경제살리기를 추진했다. 이것을 보고, 손호철 교수는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푸른숲, 1999)를 출판했다. 그는 한국이 “신자유주의의 노예”, “국제금융의 사냥터”로 전략할 위험성을 경고했다.

한국이 겪어야 했던 외환-금융위기를 동아시아의 외환-금융위기라는 큰 틀로부터 접근하면서 백광일 교수와 윤영관 교수는 『동아시아: 위기의 정치경제』(서울대학교출판부, 1999)를 출판했다. 다른 한편으로, 김영명·백영철·손호철·안청시·유현석·윤영관·임혁백·최장집 교수 등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는 『한국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응』(오름, 2001)을 편집했다. 이 책은 한국에서 자본주의의 현황과 장래, 민주화의 공고화 등을 분석했고, 동시에 한국의 발전모델 및 동아시아의 발전모델 등을 분석했다.

이 위기가 발생한 원인들에 대해, 그 원인들에 관련된 국가와 기업들의 관계에 대해,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의 성격에 대해, 김혁래·류상영·문정인·이연호 교수 등은 중요한 저술들을 출판했다. (1) Lee, Yeon-ho, *The State and Society and Big Business in South Korea* (London: Routledge, 1997); (2) 이연호, “경제적 자유화에 있어서의 국가의 역할: 경제규제의 정치학”(『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3호, 1998년 가을); (3) 이연호, “김대중정부의 경제개혁과 신자유주의적 국가등장의 한계: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한 사례”(『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제4호, 1999년 겨울); (4) Lee, Yeon-ho and Hyuk-rae Kim, “The Dilemma of Market Liberalization: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Transformation of Capitalism,” in R. Robinson, M. Beeson, K. Jayasuriya and H. Kim (eds.), *Politics and Markets in the Wake of Asian Crisis* (London: Routledge, 2000); (5) Moon, Chung-in and Sang-young Rhyu, “The State, Structural Rigidity and the End of the Asian Capitalism: A Comparative Study of Japan and South Korea,” in *ibid.* 등이 그것들이다. 이 저술들 가운데 이연호 교수의 두 번째 국문논문문에 대해 살펴보면, 그는 “김대중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를 배태할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은 빈약하다”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의 국가가 변화해가는 방향은 영미의 신자유주의적 규제국가가 아니라 싱가포르나 대만에 나타나는 연성발전국가의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고 결론지었다.

외환-금융위기는 정치경제학계에서 흔히 말해지던 “동아시아 [발전] 모델”에 대한 토론을 새롭게 재개시켰다. 김영명 교수는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재검토: 한국과 일본』(소화, 1996)를 통해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분석했다. 김일영 교수는 곧바로 서평(『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3호, 1996년 가을)을 발표했다. 백종국 교수는 “동아시아 모델 위기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의 외환위기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3호, 1998년 가을)를 발표했고, 김정렬 교수는 “동아시아 발전이론의 비판적 재구성을 위하여”(위와 같음)를 발표했다.

김영명 교수는 같은 문제의식에서 김재철·장원석·전제국·진창수 교수들과 함께 한국·일본·싱가포르·대만·중국 등의 정치체제와 발전모델을 비교한 『동아시아의 정치체제』(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8)를 편집-출판했는데, 이 책에 김일영 교수는 “한국 권위주의체제의 성격과 변화: 불안전포괄형·일인지배

하의 관료우위형 그리고 방어적 근대화를 위한 동원형”을 발표했다. 이 책과는 별도로, 정진영 교수는 “외환·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발전의 미래: 발전모델, 구조조정, 지역협력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한국과 국제정치』, 제16권 제2호, 2000년 가을-겨울)를 출판했고 김동택 교수는 ““동아시아 발전 모델론”과 “유교 자본주의론”의 상호 소원(疏遠)과 소통”(『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2집 제2호, 2000년 12월)을 출판했다.

세칭 IMF사태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국가의 역할 및 기업의 역할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토론을 새롭게 자극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인영 교수는 『한국의 경제성장: 국가주도론과 기업주도론』(자유기업센터, 1998)과 “한국경제성장과 삼성의 자본축적”(『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1호, 1998년 봄)을 출판했으며, 류상영 교수는 “포항제철 성장의 정치경제학: 정부-기업관계, 연속논쟁, 지대추구”(『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2호, 2001년 여름)를 발표했다.

세계화의 큰 흐름 속에서, 한국정부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한국정치학계는 이 협정 체결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세균 교수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위임, 『한미FTA 국민보고서』(그린비, 2006)에 “한미FTA국민보고서 총론”을 기고했으며, 이승주 교수는 “한국 통상정책의 변화와 FTA”(『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9집 제1호, 2007년 8월)를 발표했다. 최태욱(崔兌旭) 교수는 14명의 정치학자들 및 경제학자들의 원고들로서 『한국형 개발전략: 한미FTA와 대안적 발전모델』(창비, 2007)을 엮었는데, 정치학자로는 최태욱 교수와 정하용(鄭夏龍) 교수가 집필에 참여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손열 교수는 “한일FTA 추진의 정치경제: 정보화 / 세계화시대의 경제통합전략”(『국가전략』, 제10권 제4호, 2004년 겨울)을 발표했다.

XII. 노동정치학에 대한 연구

외환-금융위기가 발생시킨 한국사회 전반에서의 구조조정은 대규모 실업을 낳았으며 이것은 노동자들 그리고 노사관계 및 노사정관계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계고시켰다. 노동 및 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주로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이뤄져 왔었는데, 외환-금융위기가 대규모 실업을 발생시킨 이후 한국정치

학계도 이 주제에 대해 학문적 관심을 쏟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서구의 정치학계에서 노동정치(labor politics)라고 불리는 정치학의 한 분야가 한국정치학계에서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됐으며 마르크시스트적 분석이 힘을 얻기에 이르렀다.

이 분야에서는 김세균 교수가 주요한 연구들을 출판함으로써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하나는 자신의 논문들을 모은 『한국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정치』(도서출판 현장에서미래를, 1997)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과 다른 교수들의 논문들을 편집한 『IMF관리체제와 한국사회위기 논쟁』(문화과학사, 1998)이다. 정영태 교수는 전자에 대한 서평을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1호(1998년 봄)에 발표했는데, 이 서평은 김대중정부의 성격과 과제에 관한 기존의 논쟁들을 균형있게 설명하는 가운데 그 논쟁들 속에서 이 책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지적했다. 이어 김영수(金英秀: 외국어대) 교수는 “한국 노동자 정치운동 연구의 현황과 과제: 노동자 정치운동 연구의 대상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4호, 2001년 겨울)를 발표했다.

노사관계에 대해, 박효종 교수는 “합리적 노·사협상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진주지역 상평공단의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3호, 1996년 가을)를 통해 기존의 합리적 협상론의 주요 전제들을 수정했으며, 유현석 교수는 “한국노사관계의 변화와 대안에 관한 연구: 조합주의·생산성연합·의사결정력연합”(『국제정치논총』, 제38집 제2호, 1998년 12월)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김호진 교수는 『노동과 민주주의: 역사의 진보를 위하여』(박영사, 2000)를 출판했으며, 강민 교수와 김옥경 교수는 “국가의 변혁능력을 위한 정책 네트워크: 헤게모니 담론, 전략관계, 그리고 구조적 맥락”(『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1호, 2002년 봄)을 출판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선 김세균·손호철·구춘권·이구표·이해영 교수 등을 비롯한 정치학자들과 김진균·서관모·이진경 교수 등을 비롯한 사회학자들은 1999년 9월에 계간지 『진보평론』(도서출판 현장에서미래를)을 창간했다. 이 논문집은 신자유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세계화를 비판하면서 거기에 맞선 노동계급의 투쟁을 격려했다. 비슷한 흐름 속에서, 안병영 교수와 임혁백 교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이념·현실·대응』(나남출판, 2000)을 공편했다. 집필에 정치학자들로서는 고세훈·손호철·이해영·정무권·정진영·조홍식 교수 등이 참여했다.

정치학자 고세훈·손혁재·이재봉·정해구 교수 그리고 사회학자 유팔무 교수 등을 포함한 21명의 사회과학자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들은 2001년 11월에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를 발족시키면서, “위기에 처한 21세기 초의 한국

사회를 구하는 길은 21세기형의 한국적 사회민주주의에 있다”고 선언하고, “우리 나라 진보운동세력들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는 『한국사회민주주의선언』(사회와연대, 2001)과 『세계화와 사회민주주의』(사회와연대, 2002)를 출판했다. 비슷한 취지에서, 한국정치연구회는 2002년에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진보주의를 옹호하는 반연간지 『정치비평』(도서출판 이후)을 재창간했다. 여기에는 강명세·구갑우·구준권·김용복·신병식·오현철·전재호·정영태 교수 등이 편집 또는 집필에 참여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치사상 전공의 박호성 교수는 『휴머니즘론: 새로운 시대 정신을 위하여』(나남출판, 2007)를 출판했다. 그는 한국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거인주의(巨人主義)와 동일시하면서, 강자 즉 거인만이 자유를 누리는 자본주의 불평등구조 아래 “인간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체제를 건설할 수 있는” 이념으로 신휴머니즘을 제시한다. 신휴머니즘의 핵심요소는, 그에 따르면, “공동체주의”이다.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는 “노동운동과 시민운동의 연대”를 제의한다.

XIII. 정치리더십에 대한 연구

다른 한편으로, 6·25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불린 외환-금융위기와 실업자 속출의 긴박한 상황은 정치적 리더십 그리고 정부관리능력(governability) 및 통치(governance) 그 자체에 대한 연구를 복돋우었다. 역대 대통령들을 포함한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비교연구가 활발해졌으며, 대통령학이 미국정치학계에서처럼 하나의 분야로 정립될 수 있는 터전을 닦았다.

이 주제와 관련해, 김충남 교수는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전원, 1992)을 출판했었는데, 1998년에 이 책을 보완해 같은 제목으로 출판사 등지에서 출판했다. 최평길 교수는 박석희 박사와 함께 “대통령비서실의 조직·정책·관리기능 비교연구”(『한국행정학보』 제28권 제4호, 1995년 2월)를 출판했었는데, 최 교수는 이것을 발전시켜 『대통령학: 청와대가 잘 돼야 나라가 산다』(박영사, 1998)를 출판했고, 이 책을 수정증보해 『대통령을 보면 나라가 보인다: 대통령학』(박영사, 2007)을 출판했다.

함성득 교수는 “서평: 대통령학의 제도적 접근 — Pfiffner를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 제30권 제3호, 1996년 11월)를 발표한 데 이어, “대통령학의 이론적 고찰과 우리의 연구과제”(『한국행정학보』, 제31권 제1호, 1997년 5월)를 발표했다. 그는 이어 김충남 교수의 『성공한 대통령 실패한 대통령』, 그리고 최평길 교수의 『대통령학』을 대상으로 “주제서평: 성공적인 대통령을 위한 국정운영 리더쉽”(『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1호, 1998년 봄)을 발표했다. 이러한 연구들에 기초해, 그는 『대통령학』(나남출판, 1999)과 『영부인론』(나남출판, 2001) 및 『대통령비서실장론』(나남출판, 2002)을 저술했고, 『한국의 대통령과 권력』(나남출판, 2000)과 『김영삼정부의 성공과 실패』(나남출판, 2001)를 편저했다. 함성득 교수의 저서들은 정치학계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진영재 교수와 박찬욱 교수는 각각 서평(『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2호, 2001년 여름 및 『한국정치학회보』, 제36권 제4호, 2002년 겨울)을 통해 한국대통령 연구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정치리더십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와 대통령학의 성장은 자연히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비교평가로 이어졌다. 이것은 정치지도자의 정부관리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1998년이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의 해라는 사실과 맞물리면서 건국을 주도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는데, 앞의 제5항에서 짧게 언급했듯,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이 점과 관련해 지적돼야 할 것은 우남이승만문서편찬위원회가 이승만 대통령의 사저 이화장에 소장됐던 문서들을 중심으로 『이화장 소장 우남 이승만문서: 동문편』(전18권: 중앙일보사-연세대학교현대한국학연구소, 1998)을 출판했다는 사실이다. 이 방대한 자료집은 이승만 대통령의 연구에 새로운 조명을 주었다.

이 자료집을 포함해 새롭게 발굴된 1차자료들을 활용해, 사학자 유명익 교수는 『이승만연구: 독립운동가 대한민국의 건국』(연세대학교출판부, 2000)과 『이승만대통령 재평가』(연세대학교출판부, 2006)를 편저했고, 『젊은 날의 이승만: 한성감옥생활(1899-1904)과 옥중잡기 연구』(연세대학교출판부, 2002)를 출판했다. 두 번째 책의 집필에는 정치학자로는 김세중·김일영·박명림·온창일·전상인 교수 등이 참여했다. 같은 시기에, 정치학자 이정식(李庭植) 교수는 *Syngman Rhee, The Prison Years of a Young Radical*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01)과 『이승만의 한말 개혁운동』(배재대학교출판부, 2005)을 출판했다. 앞의 책은 권기봉 교수에 의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청년시절』(동아일보사, 2002)로 방역됐다. 양동안 교수는 이승만의 건국 공

로를 충분히 인정하는 기조 위에서 『대한민국건국사』(건국대통령이승만기념사업회, 1998; 재간 현음사[玄音社], 2001)를 출판했다.⁹⁾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정치학계의 평가에서 가장 중심적 대상이 된 대통령은 박정희였다. 한국정치연구회는 『박정희를 넘어서: 박정희와 그 시대에 대한 비판적 연구』(푸른숲, 1998)를 편집-출판했는데, 이 책은 부제가 말하듯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호주 월롱공대학교 아시아태평양양사회변화연구소의 김형아(金炯娥: Kim, Hyung-A) 박사의 저서 *Korea's Development under Park Chung Hee: Rapid Industrialization, 1961-79* (London and New York, N.Y.: Routledge Curzon, 2004)은 박정희정부 아래 일어났던 여러 부정적 사건들을 비판하고 유신의 비민주성을 지적하면서도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책은 신명주(申明珠)에 의해 『유신과 중화학공업: 박정희의 양날의 선택』(일조각, 2005)으로 방역됐다.¹⁰⁾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비교연구는 김충남 박사의 『대통령과 국가경영: 이승만에서 김대중까지』(서울대학교출판부, 2006)가 대표적이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과 안보 공적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발전 공적을 높이 평가했으며, 전두환 대통령은 국가발전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월간조선 편집부 엮음, 『이승만 박정희를 추억한다』(월간조선사, 2004)는 이승만과 박정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 9)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해지면서 이승만이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때 저술했던 *Japan Inside Out* (New York, N.Y.: Fleming H. Revell Company, 1941)이 다음과 같이 번역됐다. 대한언론인회 번역 및 편집, 『일본, 그 가면의 실체: “다시는 종의 명예를 메지 말라”』(청미디어, 2007). 이 대통령의 부인에 대해서도 책들이 출판됐다. (1) 이순애(Mag. Soonae Lee-Fink), 『프란체스카 리 스토리』(랜덤하우스중앙, 2005). 저자는 오스트리아인 변호사 Fink 씨의 부인이다. (2) 프란체스카 도너 리 지음 이주영 감수 조혜자 옮김, 『이승만대통령의 건강: 프란체스카 여사의 살아온 이야기』(도서출판 촛불, 2006).
- 10) 김형아 박사의 주도 아래 2004년 11월에 월롱공대학교 아시아태평양양사회변화연구소는 「박정희 시대: 25년 뒤의 재평가」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백낙청 교수는 여기서 행한 기조연설을 토대로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논문을 써서 『창작과비평』, 2005년 여름호, 287-297쪽에 발표했다. 그는 박정희에 대해 “전제적이며 포악하기까지 했지만 유능하고 그 나름대로 헌신적이기도 했던 ‘주식회사 한국’의 CEO”라고 부르며, “마르크스와 중독이론의 영향을 받은 급진적 분파들이 박정희 시대의 수출주도형 성장 모델을 배경하고 ‘내포적인’ 발전노선을 제창했지만, 개방형 모델이 더 현실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비교연구는 남북한 최고지도자들의 비교연구로 이어졌다. 김상태·김세중·김영수(金英秀: 서강대)·김왕식·박재정·신진·양길현·양병기·염홍철·이택휘·정운재·한용원·황태연 등 13명의 한국정치학회 회원들이 집필하고 한국정치학회가 편집한 『남북한의 최고지도자』(백산서당, 2001)가 바로 그것이다.

정신분석학 전공의 의학박사이면서 한국정치학회 회원인 백상창 교수는 『정신분석정치학』(한국사회병리연구소, 2000)을 출판했다. 그는 이 책에서 남한사회의 개인주의를 분석함과 아울러 북한의 김정일 그리고 남한으로 망명한 황장엽 등을 분석했다.

XIV. 정치전기학의 성장

정치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정치지도자들의 회고록들과¹¹⁾ 전기들의 분석을 통한 한국정치의 연구,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전기들의 출판으로 이어졌다. 이로써 한국의 정치학계에도 정치전기학 또는 전기학적 정치학의 시대가 열렸다. 이 점을 신복룡 교수는 “전기정치학 시론: 그 학문적 정립을 위한 모색”(『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3호, 1998년 가을)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한국의 정치학자들 가운데 정치전기를 처음으로 출판한 이는 『전봉준의 생애와 사상』(양영각, 1982)을 출판한 신복룡 교수였다. 그는 이 책을 『전봉준평전』(지식산업사, 1996)으로 증보했다. 그는 이어 최기창과 함께 『애국지사 최익환』(선인, 2003) 및 『애국지사 최익환 II: 한국전쟁 휴전 교섭 밀사 기록』(선인, 2007)을 출판했다. 정운재 교수는 『다사리국가론: 민세 안재홍의 사상과 행동』(백산서당, 1999)을 출판한 데 이어 『다사리공동체를 향하여: 민세안재홍평전』(한울, 2002)를 출판했으며, 정경환 교수는 『백범평전: 상해의 함성은 끝나지 않았다』(부산: 이경, 2007)를 출판했다.

11) 최근에 출판된 정치인들의 회고록들에 다음이 있다. (1) 이상옥, 『전환기의 한국외교: 이상옥 전 외무장관 외교회고록』(삶과 꿈, 2002); (2) 심대평, 『길은 항상 새롭게 열린다』(동화출판사, 2004); (3) 남재희, 『아주 사적인 정치비망록』(민음사, 2006); (4) 김성진, 『박정희를 말한다: 그의 개혁정치, 그리고 과잉충성』(삶과꿈, 2006); (5) 정재철, 『아름다운 유산: 유암(裕岩) 정재철(鄭在哲) 회고록』(여백미디어, 2007).

어느 누구보다도 정치지도자들의 전기를 가장 많이 출판한 정치학자는 심지연 교수이다. 1986년에 김남식과 함께 사실상의 박헌영 전기인 『박헌영노선 비판』(세계사, 1986)을 출판했고 1992년에 『김두봉: 한글연구에서 무장투쟁으로』(동아일보사, 1992)를 출판했던 그는 『잊혀진 혁명가의 초상: 김두봉 연구』(인간사랑, 1993)를 출판한 데 이어, 『허헌 연구』(역사비평사, 1994) · 『산정에 배를 매고: 노촌(老村) 이구영(李九榮) 선생의 살아온 이야기』(개마서원, 1998) · 『송남현회고록, 김규식과 함께 한 길: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하여』(한울, 2000) · 사학자 강만길 교수와의 공저 『우사 김규식, 생애와 사상』제1권 (『항일독립투쟁과 좌우합작』)(한울, 2000) · 『역사는 남북을 묻지 않는다: 격랑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살아온 노촌 이구영 선생의 팔십년 이야기』(소나무, 2001) · 『이강국 연구』(백산서당, 2006) · 『이주하 연구』(백산서당, 2007)를 출판했다.¹²⁾

XV. 정치이념과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

1998년 2월에 김대중정부가 출범했으며, 2003년 2월에는 이 정부와 이념과 노선을 같이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노무현정부가 출범했다. 이 두 정부의 출범은 한국의 정치사에서 최초로 이른바 진보주의적 정부가 출범했음을 의미했다. 우리가 제 17항과 제 22항에서 보게 되는 이 두 정부의 이념적 지향들과 정책들은, 전통적 “보수우익세력”의 입장에서, 이 두 정부가 “대중영합적”일 뿐만 아니라 “친북반미적”인 “좌파정권”임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시각에서는 전통적 “보수우익세력”은 시대착오적 “반공반북주의”와 “친미사대주의”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지속된 남북대결지향적 독재체제들을 뒷받침한 수구적 “반민주 반평화 전쟁옹호” 세력이었다. 자연히 두 세력들 사이에 상대방

12) 김민희, 『쓰여지지 않은 역사』(대동, 1993)는 권영벽 · 김삼룡 · 성시백 · 방준표 · 박정호 · 최백근 · 김종태 · 도예종 · 이재문 등 아홉 공산주의자들의 전기이다. 저자의 자기 소개에 따르면, 그는 1963년에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생 명단에 이러한 사람은 없다. 이 책의 전반적 흐름이 김일성 찬양과 박헌영 매도 및 대한민국 부정으로 일관되어 있음에 미뤄, 저자는 김일성정권에 연결된 가명의 사람인 것으로 짐작된다.

의 성격을 규정짓는 일을 둘러싸고 논쟁이 격화됐다.

정치학계는 한국정치에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갖는 의미를 반추하게 됐다.

(1) 강광식·강정인·박동천·심지연·이서행·전상인 교수 등이 공저한 『현대한국이념논쟁사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2) 김병국 교수 등이 공저한 『한국의 보수주의』(인간사랑, 1999); (3) 김일영 교수의 “한국정치의 새로운 이념적 좌표를 찾아서: ‘뉴라이트’와 ‘뉴레프트’ 그리고 공통된 지평으로서의 자유주의”(『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제2호, 2006년 2월)는 그러한 반추를 반영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정부를 “친북반미좌파정권”으로 규정한 세력들 가운데 하나인 뉴라이트운동세력은 정치·경제·외교·안보·통일·사회·문화 등 한국의 각 부문에서의 신보수주의적 개혁운동을 전개했다. 그 대표적 저서가 신지호 교수의 『뉴라이트의 세상 읽기』(기파랑, 2006), 그리고 김영호 교수와 조성환 교수 등이 참여한 뉴라이트정책위원회의 『2008 뉴라이트 한국보고서: 부활하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한국인을 위한 구상』(도서출판 뉴라이트, 2008)이다.¹³⁾

정치학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서양의 정치이념들 또는 정치사상들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동양과 한국의 그것들에 대해서도 새롭게 관심을 쏟게 됐다. 이러한 새로운 관심은 신복룡 교수의 『한국정치사상사』(나남출판, 1997) 및 『한국의 정치사상가』(집문당, 1999), 김혜승 교수의 『한국민족주의: 발생양식과 전개과정』(비봉출판사, 1997), 함재봉 교수의 『탈근대와 유교: 한국정치담론의 모색』(나남출판, 1998),¹⁴⁾ 정윤재 교수 등이 공저한 『한국정치사상의 비교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김만규 교수의 『한국의 정치사상』(현문사, 1999), 강광식 교수의 『신유학

13) 이른바 보수주의의 입장에서 이른바 진보주의를 비판한 시론들이 적잖게 출판됐다. 정치학박사 박근 전 유엔대사는 『한국보수주의의 위기: 정(情)과 멋의 지도이념이 없어졌다』(한국논단, 1997)와 『한국의 보수여, 일어나라!』(월간조선사, 2002)를 통해, 이철승 전 국회부의장은 『오! 대한민국 누가 지키리: 소설 이철승 팔순기념정론집』(월간조선사, 2002)을 통해, 그리고 6·25전쟁 때 북한군에 대항해 싸우다가 월남한 이경남 전 월간 『동화』 발행인은 시사평론집 『큰 역사에 바치는 작은 증언: 친북좌파와 꺼져야 통일이 온다』(알파, 2002)를 통해, 한미동맹과 반김정일노선을 옹호하고 “친북좌파”의 역사인식을 비판했다.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상돈 박사는 시론집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경덕[京德]출판사, 2007)을 출판했다. 이 책은 남한사회의 이른바 좌파세력이 조성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비판했다.

14) 이 책에 대한 서평으로 김석근 교수의 서평이 대표적이다. 『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3호 (1998년 가을), 303-307쪽.

사상과 조선조 유교정치문화』(집문당, 2000), 진덕규 교수의 『한국정치의 역사적 기원』(지식산업사, 2002), 이재석 교수 등이 공저한 『한국정치사상사』(집문당, 2002), 전세영 교수의 『울곡의 군주론』(집문당, 2005) 등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 유종선 교수는 “조선 후기 天 논쟁의 정치사상”(『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3호, 1997년 가을)을, 김동성 교수는 “근대 한국민족주의의 행태적 특성”(『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제2호, 2003년 여름)을, 최연식 교수는 “정암 조광조(1482-1519)의 도덕적 근본주의의 정치개혁”(『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5호, 2003년 겨울)을, 채장수 교수는 “한국 좌파집단의 인식과 지향”(『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3호, 2004년 가을)을, 차남희 교수는 “한국고대사회의 정치변동과 무교: 고대국가 건국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2호, 2005년 여름)를, 김홍우·박현모·이원택 교수는 “한국정치사상”(김세균·박찬욱·백창재 공편, 『정치학의 대상과 방법』, 박영사, 2005)을, 각각 발표했다.

한국의 정치사상에 대한 관심은 마침내 김영작·김홍우·박충석·신복룡·유근호·이달순·이재석·이택휘·정운재 교수 등이 중심이 돼 2001년에 한국·동양 정치사상사학회를 발족시키는 것으로 조직화되기에 이르렀다. 이 학회는 한국정치사상의 통사로 『한국정치사상사: 단군에서 해방까지』(백산서당, 2005)를 편집-출판했다. 이 책은 “단군조선의 건국이념과 정치사상”으로부터 시작해 “3·1운동의 정치사상”까지 다룬 모두 32개의 논문들로 구성됐다. 집필에는 강광식·김석근·김용직·김한식·부남철·손문호·오문환·우남숙·이재석 교수 등 42명이 참여했다. 한국의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뤄졌다. 김기승·오문환·이시형·이승연·이완종·이종은·임형진·조현주·홍원표 교수 등은 한말 이후 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정치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이 지녔던 정치사상들을 『국가건설사상』(전3권: 인간사랑, 2006)으로 편집-출판했다.

XVI. 한국민주주의론의 재론

1998년 2월의 김대중정부 출범 그리고 2003년 2월의 노무현정부 출범은, 특히 이른바 진보주의자들의 시각에서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또는 공화화가 더욱 심화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김대중정부는

2001년 10월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발족시켰으며, 이 기구는 2002년에 『2002년도 민주화운동사료목록집』을 출판했다. 제1권은 “현황편”이고, 제2권·제3권·제4권은 모두 “목록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민주주의론이 다시 토론됐다.

이 주제와 관련해 우선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정경환 교수의 『한국현대정치사 연구: 민주화과정과 정치개혁』(부산: 신지서원, 2000), 그리고 송병록·송석원·임혁백·정주신·최용섭·최장집 교수 등이 집필에 참여한 민준기 교수 편저 『21세기 한국의 정치』(법문사, 2001)의 제1부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화”이다.

매우 깊이 있게 토론돼야 할 저서는 최장집 교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후마니타스, 2002)이다. 최 교수는 민주화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마인섭 교수는 이 책에 대한 서평논문 “왜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나?”(『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4호, 2002년 겨울)에서 최 교수의 그러한 진단은 “민주화 이후 소위 ‘민주화 피로’ 현상마저 보이던 정치계와 특히 정치학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고 썼다.

이어 강문구 교수의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사회협약의 가능성: 김대중정부하의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한국과 국제정치』, 제14권 제2호, 1998년 가을-겨울)를 지적할 수 있다. 이 논문은 김대중정부가 사회협약을 통해 민주화를 공고화시킬 개연성을 높였다고 보았다. 선학태 교수의 “신생민주주의공고화의 가능성과 한계: 김대중정권의 메트로코포라티스적 사회협약정치의 실험”(『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4호, 2002년 겨울)은 김대중정권의 메트로코포라티스적 사회협약정치의 결과들에 대해 긍정적 측면과 한계 및 불안정성의 측면을 모두 균형있게 살핀 뒤, “한국신생민주주의[는] 여전히 ‘부분적으로 공고화’ 또는 ‘공고화의 지체’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손호철 교수는 『근대와 탈근대의 한국정치』(문화과 학사, 2002); 『현대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1945-2003』(사회평론사, 2003); “민주화운동, 민주화, 민주주의: 개념과 한국적 특성을 중심으로”(『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제4호, 2003년 겨울)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민주화를 깊이 있게 천착했다.

마지막으로 박기덕 박사의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민주화·공고화·안정화』(한울아카데미, 2006)를 지적할 수 있다. 4부로 구성된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려 공고화되었다고 간주된다”고 결론지었다.

XVII. 근현대사 연구의 재추동

김대중정부가 출범한 1998년은 대한민국 건국 50주년의 해이면서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 50주년의 해였다. 이 사실만으로도 한[조선]민족의 근현대사에 대한 재조명이 시도되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김대중정부가 출범하면서 조선왕조 말기에서 시작해 일제강점기를 거쳐 제6공화국의 노태우정부에 이르기까지 저질러졌던 역사적 과오들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로 이른바 과거사(過去史)의 규명을 부르짖게 되자, 근현대사에 대한 연구는 심화의 추동력을 다시 얻게 됐다.

2003년에 노무현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굳어졌다. 그 결과 2004년 3월과 2005년 12월에 각각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특별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발효됐으며, 이 법들에 기초해 각각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다. 이로써 역사학자들이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역사권력의 시대가 열렸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둘러싼 학문적 및 정치적 연구들과 논쟁들은 깊어졌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정부의 재평가 작업과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김용직 교수는 『한국 근·현대정치론』(풀빛, 1999)을 출판했고 『자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1945-1979』(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5)를 편저했으며, 하영선·김영호·김명섭 교수 등은 『한국외교사와 국제정치학』(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5)을 공편했고, 강규형·구대열·김영호·김용직·김일영·우철구·유영익·이완범·전상인·정용화·하영선·홍성걸 교수 등은 『청소년을 위한 우리 역사 바로 보기』(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2006)를 공저했으며, 신복룡 교수는 『한국사 새로 보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역사의 진실』(풀빛, 2001)을 출판했다. 김일영 교수는 『건국과 부국(富國): 현대한국정치사 강의』(생각의나무, 2004)를 출판했는데, 이 책은 1945년 8월 대한민국의 건국으로부터 1972년 12월 유신체제의 등장까지의 한국정치사를 포스트수정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했다.¹⁵⁾

15) 언론인이며 한국사학자인 천관우의 『자료로 본 대한민국건국사』가 지식산업사에서 2007년에 출판됐다. 후학들이 고인의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고인이 1955년부터 1959년 사이에 집필한 원고들을 발굴해 이 책으로 출판한 것이다.

1. 일제조선강점과 항일독립운동

한[조선]민족의 근현대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의 주제는 일제의 조선 강점기관들과 “통치” 방식들이다. 우선 김운태 교수는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박영사, 1986; 개정판, 1998)를 출판했다. 이어 전상숙 교수는 『일제시기 한국사회주의 지식인 연구』(지식산업사, 2004)를 출판했는데, 일제가 강요한 “전향”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뤘다. 정혜경·박성진(朴成鎭) 박사 등이 참여한 수요역사연구회 편, 『일제의 식민지배정책과 매일신보, 1910년대』(두리미디어, 2005)는 조선총독부의 대표적 기관지 『매일신보』를 분석했으며 정진석, 『언론조선총독부』(커뮤니케이션 북스, 2005)는 조선총독부의 3대 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및 『서울프레스』를 분석했다.¹⁶⁾ 국사학자 박성진과 국사학자 이승일(李昇一) 박사는 조선총독부가 모든 행정행위를 문서를 통해 계획하고 실천했음을 논증한 『조선총독부 공문서: 일제시기 기록관리와 식민지배』(역사비평사, 2007)를 출판했다.

이 주제들에 비해 연구와 출판이 훨씬 두드러진 주제는 항일독립운동이다. 국가보훈처와 국사편찬위원회 등 정부기관들이 재정적 및 인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자료발굴과 출판이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훨씬 쉬워졌다. 특히 러시아 문서와 중국 문서에 대한 접근이 훨씬 쉬워지면서, 지난날 제정러시아와 소련, 그리고 만주와 중국본토에서 전개된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연구가 많은 성과를 냈다.¹⁷⁾

16) 일본에서는 이련(李鍊)이 자신의 1991년도 조지대학(上智大學) 박사논문을 바탕으로 『조선언론통제사: 일본통치하조선의언론통제(일문)』(도쿄: 신산사[信山社: 신산사], 2002)를 출판했다.

17) 국사편찬위원회는 산하에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집 총서를 출판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전7권: 경기도 과천시: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 2005). 제1권 (헌법·공보), 제2권 (임시의정원 I), 제3권 (임시의정원 II), 제4권 (임시의정원 III), 제5권 (임시의정원 IV), 제6권 (임시의정원 V), 제7권 (한일관계사료집).

국사편찬위원회는 해외사료총서를 다음과 같이 편집·출판했다. (1) 해외사료총서 1 『일본소재 한국사자료 조사보고 1: 국립공문서관·국회도서관헌정자료실·외교사료관 외』(2002); (2) 해외사료총서 2 『미국소재 한국사자료 조사보고 I: NARA 소장 RG59·RG84

이것은, 그 구분이 명백하지는 않지만,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산하 한국광복군을 중심으로 한 항일독립운동이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사회학자 신용하, 사학자 이현희, 사학자 이연복, 사학자 서중석, 사학자 한시준, 사학자 노경채, 사학자 김희곤, 정치학자 안천, 정치학자 정경환 등이 여러 저술들을 내놓았다.¹⁸⁾

둘째, 공산주의자들 또는 좌익지도자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항일독립운동이었다. 이 주제와 관련해, 사학자 신주백 교수는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45): 민족주의운동 및 사회주의운동 계열의 대립과 연대를 중심으로』(아세아문화사, 1999)를, 사학자 장세운 교수는 『중국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명지사, 2005)를 출판했다. 공산주의자로 출발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도 잠시 참여했던 민족주의자 이동휘에 관해서는 사학자 반병률 교수가 『생애이동휘일대기』(범우사, 1998)를 출판했으며, 기독교사학자 서정민(徐正敏) 교수는 『이동휘와 기독교: 한국 사회주의와 기독교 관계 연구』(연세대학교출판부, 2007)를 출판했다.

외』(2002); (3) 해외사료총서 3 『미국소재 한국사자료 조사보고 II: NARA 소장 RG332 · RG338 외』(2002); (4) 해외사료총서 4 『미국소재 한국사자료 조사보고 III: NARA 소장 RG242 <선별노획문서> 외』(2002); (5) 해외사료총서 5 『일본외무성외교사료관 소장 한국 관계사료목록 1875-1945』(2003); (6) 해외사료총서 6 『러시아연방국방성중앙문서보관서 소련군정문서, 남조선정세보고서 1946-1947』(2003); (10) 해외사료총서 10 『쉬띠꼬프일기 1946-1948』(2004); (11) 한국근대사자료집성 11 『프랑스외무부문서 1 1854-1899』(2002); (12) 한국근대사자료집성 12 『프랑스외무부문서 2: 조선 I · 1888』(2003).

- 18) 김희곤, 『중국관내 한국독립운동단체 연구』(서울: 지식산업사, 1995); 노경채, 『한국독립당연구』(서울: 신서원, 1996); 안천, 『신흥무관학교: 정통독립군 · 원초적 사관학교』(교육과학사, 1996); 이연복, 『대한민국임시정부 30년사』(서울: 국학자료원, 1999); 윤대원(尹大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직 · 운영과 독립방략의 분화, 1919-1930」,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학위논문, 1999;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서울: 역사비평사, 2001); 이현희, 『대한민국임시정부사연구』(서울: 혜안, 2004); 정경환, 『백범 김구 연구』(전5권: 부산: 이경, 2005); 신용하, 『한국 항일독립운동사 연구』(서울: 경인문화사, 2006). 한시준, 『대한제국군에서 한국광복군 까지: 황학수(黃學秀)의 독립운동』(서울: 역사공간, 2006). 황학수는 한국 광복군 총사령대리를 역임했다. 이명화, 『근대화의 선각자 최광옥(崔光玉)의 삶과 위대한 유산』(역사공간, 2006) — 최광옥은 독립협회에 참여했으며 안악면학회(安岳勉學會)를 이끈 교육자였다 — ; 김인식(金仁植), 『중도의 길을 걸은 민족주의자 안재홍의 생각과 삶』(역사공간, 2006); 한상도, 『대륙에 남긴 꿈 김원봉의 항일역정과 삶』(역사공간, 2006).

미국에서의 항일독립운동에 관한 자료들도 적잖게 발굴됐다. 우선 국가보훈처는 『미주한인민족운동자료』(국가보훈처, 1998)를 출판했다. 사학자 고정휴 교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통합정부 수립운동에 관한 재검토”(『한국근현대사연구』, 제13집, 2000년 여름호)와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연세대학교출판부, 2004) 및 “하와이 중한민중동맹단(1938-1945) 연구”(『한국근현대사연구』, 제34집, 2005년 가을호)를 차례로 출판했다.

해외에서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항일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연구가 심화됐다. 국내에서의 항일독립운동은 1919년 3·1운동 이후 대체로 조선공산당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세력에 의해 주도됐으며 어느 일정 기간에는 좌우통일전선에 기초한 신간회의 협력을 받았다. 사회주의운동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학자 전명혁 박사와 사학자 이현주 박사 등이, 조선공산당에 대한 연구에서는 사학자 임경석 교수 등이, 각각 독보적인 저술들을 출판했다.¹⁹⁾ 정치학계에서는 심지연 교수가, 우리가 제14항에서 보았듯, 단연 개척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2. 분단의 배경과 과정

한[조선]반도의 분단 배경과 과정에 대해 남한의 정치학계는 글자 그대로 국제학계의 연구들을 뛰어넘는 결정적인 연구들을 생산했다. 신복룡 교수의 『한국분단사연구: 1943-1953』(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이완범 교수가 자신의 1994년도 연세대학교 정치학박사학위논문 “미국의 한반도 분할선 획정에 관한 연구 (1944-1945)”를 보완해 출판한 『삼팔선획정의 진실』(서울: 지식산업사, 2001), 김기조 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총영사가 자신의 1992년도 국민대학교 정치학박사학위논문 “한반도 38선 분할과정 재조명: 미·영·소와 일본간의 중전전략과 전시외교를 중심으로”를 보완해 출판한 『38선 분할의 역사: 미, 소·일간의 전략대결과 전시외교의 비사, 1941-1945』(동산출판사, 1994) 그리고 이 책을 다시 개정증보해 출판한 『한반도 38선 분할의 역사: 일제 15년전쟁 정전전략과 미·소 외교전략 비사』(파주: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2006) 등이 그것들이다. 구대열 교수의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1:

19) 전명혁, 「1920년대 국내 사회주의운동 연구: 서울파를 중심으로」, 서울 성균관대학교문학박사학위논문, 1998; 이현주, 『한국사회주의세력의 형성, 1919-1923』(서울: 일조각, 2003); 임경석, 『한국사회주의의 기원』(서울: 역사비평사, 2003).

일제시기 한반도의 국제관계』(역사비평사, 1995) 및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2: 해방과 분단』(역사비평사, 1995)은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국제적 배경을 설명했다.

3. 미군정의 남한점령통치

미군정의 남한점령통치에 대해서는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가 미군정 시기의 미국정부 자료들 및 미군정 자료들을 미국 연방정부 산하 국립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에서 입수해 출판함으로써 이 주제의 연구에 크게 이바지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미군정기정보자료집: 하지(John R. Hodge)문서집(1945. 6-1948. 8)』 1(1995), 2(1995), 3(1995)의 세 권이다. 이어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국무부 산하 정보조사국(Office of Information Research: OIR)이 작성한 한국관련문서들이다. 『미국무부정보조사국(OIR) 한국관련보고서』(전5권: 2002) 가운데 제1권(1942년 3월 7일-1947년 8월 3일)과 제2권(1948년 4월 27일-1950년 7월 13일)이 미군정에 관련된 자료들을 담고 있다.²⁰⁾

정치학자 김석준 박사는 미군정의 통치구조와 행정을 분석한 『미군정시대의 국가와 행정』(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을 출판했다. 사학자 정용욱 교수와 사학자 정혜경 박사는 이 시기에 관한 자료집 편집을 주도해, 정혜경 외, 『해방전후사 사료 연구 1』(선인, 2002), 정용욱 외, 『해방전후사 사료 연구 2』(선인, 2002), 정용욱, 『미군정자료연구』(선인, 2003)를 출판했다. 정용욱 교수는 미군정에 대해 비판적 해석들을 담은 “1942-47 미국의 대한정책과 과도정부형태구상”(서울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1996)을 집필했으며 『존 하지와 미군점령통치 3년』(중심, 2003)을 출판했다.

구대열 교수는 ““자유주의” 열강과 해방정국(1945-1950)”(『국제정치논총』, 제45집 제4호, 2005년 12월)을 출판했다. 그는 “냉전의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의 대결에서 사회주의 압제체제를 해방시킨다는 자유주의적 ‘해방세력(libertating force)’의 승리를 내세운다. 해방정국의 한국은 바로 이 같은 이데올로기의 대결장이며 한국은 ‘자유주의’의 전진보루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오항미 교수는 “분할점령통치와 분단과정 속에서의 남한의 국가건설: 서독의 국가

20) 제3권(1950년 8월 18일-1952년 1월 8일), 제4권(1952년 3월 5일-1956년 3월 29일), 제5권(1956년 2월 7일-1961년 3월 1일)은 미군정기와는 무관하다.

건설과 비교를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 제45집 제4호, 2005년 12월)를 발표했다.

3. 소련군의 북한점령통치

미군의 남한점령통치에 대한 연구에 비해 소련군의 북한점령통치에 대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 근본적 이유는 이 주제에 대한 원자료의 부족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 중반을 계기로 사학자 전현수 교수와 정치학자 기광서 교수를 비롯해 러시아어를 해독하고 러시아에 유학하면서 소련문서들을 발굴한 학자들의 노력 덕분에 한국정치학계는 이 주제에 대한 원자료 가운데 중요한 부분에 접하게 됐다. 우선 전현수 교수는 그때 북한점령통치의 방향을 결정하던 소련극동군 연해주 군관구 군사위원 스티코프 육군상장의 일기를 번역하고 해설했다. 전현수, “『쉬띠꼬프일기』가 말하는 북한정권의 성립과정”(『역사비평』, 제간 30호, 1995년 가을), 그리고 전현수 편저, 『쉬띠꼬프일기 1946-1948』(국사편찬위원회, 2004)이 그것들이다.²¹⁾

곽진오·김하영·전현준·정현수·조한범 교수를 비롯한 정치학자들 역시 옛 소련문서들 및 옛 동독문서들 가운데 이 주제에 관한 자료들을 발굴했다. 그들은 그러한 자료들을 근거로 소련군점령 아래서의 북한 그리고 공산정권의 형성과정에 대한 저서들을 출판했다. 『해외자료로 본 북한체제의 형성과 발전』(전2권: 선인, 2006)이 그 대표적 보기들이다.

옛 소련자료들의 발굴은 이른바 해방공간에 대한 인식과 6·25전쟁에 대한 인식을 훨씬 객관화시켰으며 그 과정에서 수정주의는 상당히 약화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명익 교수의 편집으로 『수정주의와 한국현대사』(연세대학교출판부, 1998)가 출판됐다. 집필에는 정치학자들로서는 김영호·박명림·이완범·이정식(李庭植)·전상인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어 양호민 교수는 전통주의적 시각에서 해방8년사를 설명한 『38선에서 휴전선으로』(생각의나무, 2004)를 출판했다.

21) 전현수 교수는 강규형 교수와 함께 스티코프일기의 핵심적 부분들을 영어로 요약해 다 음과 같이 출판했다. Hyun-soo Jeon with Gyoo Kahng, “The Shitykov Diaries,”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Issues 6-7 (Winter 1995-1996), pp. 69-93.

4. 6 · 25전쟁

2000년은 6 · 25전쟁 발발 50주년의 해였으며 2003년은 한국[조선]휴전협정 체결 50주년의 해였다. 이 해들은 6 · 25전쟁에 관한, 그리고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 관한, 기존의 학문적 관심을 새롭게 제고시켰다.

우선 6 · 25전쟁과 관련해 지적돼야 할 것은 러시아 정부기관들이 소장한 자료들의 발굴과 그것들에 기초를 둔 분석이 활발해졌다는 사실이다. (1)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씀 김광린 옮김,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열림, 1998); (2) 와다 하루키 지음 서동만 옮김, 『한국전쟁』(창작과비평사, 1999); (3) 기광서, “소련의 한국전 개입과정”(『국제정치논총』, 제40집 제3호, 2000년 11월); (4) 채규철, “한국전쟁의 기원에 관한 연구: 한국인의 성격적 ·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위와 같음); (5) 김덕중, 『소련군의 한국전 참전』(경기대학교출판부, 2006) 등이 그 대표적 보기들이다.

옛 소련문서들의 발굴과 그것에 따른 새로운 저술들은 6 · 25전쟁이 김일성과 스탈린 및 마오쩌둥의 공모에 의해 일어났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이에 따라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이른바 수정주의적 인식의 약화이다. 그 점은 국내에서 6 · 25전쟁을 깊이 있게 연구한 대표적 정치학자 박명림 교수의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 결정과 발발』(나남출판, 1996)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II: 기원과 원인』(나남출판, 1996) 및 『한국 1950: 전쟁과 평화』(나남출판, 2002)에 잘 나타났다. 이 책은 “중도우파적 전통주의”의²²⁾ 또는 “포스트 수정주의적”²³⁾ 시각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 점은 또 김용직 교수의 “한국전쟁과 사회운동: 브루스 커밍스의 사회혁명: 내전 가설 비판”(『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1호, 1998년 봄)에 잘 나타났다. 이 논문은 6 · 25전쟁을 내전으로 파악함으로써 수정주의적 해석을 확산시킨 커밍스 교수의 이론을 철저히 비판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1) 김계동,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 민족분열과 국제개입-갈등』

22) 신복룡, 「한국정치사학사」, 한국정치학회 위임, 『한국정치학 50년』(한올아카데미, 2001), 197쪽.

23) 손호철, 「한국정치 연구 50년」, 손호철,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1945-2005』(이매진, 2006), 121-122쪽.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²⁴); (2) 한국전쟁연구회 편,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백산서당, 2000); (3) 한국전쟁연구회 편, 『한국현대사의 재조명』(명인문화사, 2007)에 다시 명확히 나타났다. (1) 김계동·김명섭·김영호·라종일·박두복·서동만·서주석·온창일·이완범·허만호·홍용표 등이 집필에 참여한 『탈냉전시대 한국전쟁의 재조명』은 6·25전쟁을 남한·북한·미국·영국·중국·소련 등 관련국가들 모두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가운데, 그리고 (2) 김계동·김귀옥·김기조·김남균·김영호·박명림·박태균·양영조·온창일·유임하·이완범·조성훈·허만호·홍용표 등이 집필에 참여한 『한국현대사의 재조명』은 이 전쟁에 대한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가운데, 수정주의적 해석에서 사실상 거의 완전히 벗어났음을 보여주었다.

이어 김영호 교수는 자신의 기출간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과 전개과정』(두레, 1998)을 부분적으로 수정증보해 같은 제목으로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에서 2006년에 출판했다. 이 책은 이 전쟁이 스탈린의 주도 아래 일어났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김경수 교수의 『인도와 한국전쟁: 인도 비동맹외교의 기원』(파주: 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 2006)을 지적하고자 한다. 인도는 6·25전쟁이 일어난 직후부터 휴전협정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휴전협정의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도 국내 학계에서는 이 주제에 대해 학문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책은 그 공백을 메운 첫 시도였다고 하겠다.

한국전쟁학회는 2006년 3월 31일에 배재대학교 대회의실에서 “한국전쟁의 성격과 맥아더 논쟁의 재조명”이라는 이름의 학술회의를 열었다. 김남균·김명섭·김영호·오은경·이완범·조성훈 교수 등이 대체로 비(非)수정주의적 입장에서 논문들을 발표했다. 논문들과 토론들은 『한국전쟁의 성격과 맥아더 논쟁의 재조명』(한국전쟁학회, 2006)으로 출판됐다.

김명섭 교수는 “한국전쟁이 냉전체제의 구성에 미친 영향”(『국제정치논총』, 제43집 제1호, 2003년 4월)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은 한국전쟁을 미소냉전의 큰 틀 안에서 조명했다. 이철순 교수는 “한국전쟁 이전 미국의 한국의 가치에 대한 평가”(위와 같음)를 발표했다.

24) 이 책에 대한 서평으로 김명섭 교수의 서평이 대표적이다. 『국제정치논총』, 제40집 제3호, 2000년 11월, 447-450쪽.

XVIII. 북한에 대한 연구의 심화

제6항과 제7항에서 보았듯, 북핵문제와 김일성의 사망 및 김정일 유신통치체제의 등장은 북한에 대한 연구를 크게 진전시켰다. 김대중정부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은 이 흐름을 가속화시켜 북한에 대한 연구는 더욱 다각화됐고 동시에 심화됐다.

이와 관련해 지적돼야 할 것은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이 1998년 11월에 『현대북한연구』를 창간한 사실이다. 이 논문집은 정권의 형성과정으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북한을 거의 전적으로 원자료에 바탕을 두고 분석한 전문적 논문들만을 출판하고 있다. 집필에는 국내의 정치학자들로 강정인·기광서·김근식·김연철·남성욱·백학순·서동만 등이 참여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북한 해방 8년사 연구』(백산서당, 1999) 및 『북한현대사문헌연구』(백산서당, 2001) 등, 그리고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는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한울아카데미, 2004) 및 『북한의 국가전략』(한울아카데미, 2004) 등, 북한을 전문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출판했다.

서대숙 교수와 이완범 교수는 『김일성 연구자료집: 1945-1948년 문건』(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1)을 출판했으며, 이태섭 교수는 자신의 2001년도 서울대학교 정치학박사학위논문 “북한의 집단주의적 발전전략과 수령체계의 확립”을 바탕으로 『김일성리더십 연구: 수령체계의 성립배경을 중심으로』(들녘, 2001)를 출판했고, 김구섭 박사와 차두현(車斗鉉) 박사는 『북한의 권력구조와 권력엘리트』(한국국방연구원, 2004)를 공저했으며, 서동만 교수는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선인, 2005)을 출판했다.

고병철 교수는 북한의 외교를 설명하는 영문저서, *Byung Chul Koh, North Korea and the World: Explaining Pyongyang's Foreign Policy*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2004)를 편집했는데, 여기에 국내의 정치학자들로는 문정인 교수와 박재규 교수가 참여했다. 남북협상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지닌 송종환 교수는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오름, 2002; 개정증보판 2007)를 출판했다. 이 책은 자신의 2002년도 한양대학교 정치학박사학위논문 “북한의 협상행태에 관한 연구: 남북한 당국간 대화를 중심으로”를 보완한 것이다. 양무진 교수는 “북한의 대남협상행태: 지속과 변화를 중심으로”(『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제4호, 2003년 겨울)를 출판했다. 백성호 교수는

“김일성 사후 북한 외교노선의 변화와 대외관계의 특징: 1995년부터 2004년까지 『로동신문』의 사설분석을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 제45집 제4호, 2005년 12월)를 발표했다. 양운철 교수는 『북한 경제체제이행의 비교연구: 계획에서 시장으로』(한울아카데미, 2005)를 출판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김병로 박사가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민족통일연구원, 1997)을, 최의철 박사가 『인권과 국제정치 그리고 북한인권』(백산자료원, 2001)과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통일연구원, 2003) 및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통일연구원, 2005)을, 김수암 박사가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통일연구원, 2005)을 각각 출판했다. 우승지 교수는 “북한 인권문제 연구의 쟁점과 과제”(『국제정치논총』, 제46집 제3호, 2006년 9월)를 발표했다.

XIX. 인권정치학과 환경정치학에 대한 연구

김대중정부는 남녀양성평등을 포함한 인권의 신장을 국정과제들 가운데 우선시켰다.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설, 여성가족부의 신설, 남녀고용평등법안의 제정 등으로 구체화됐다. 노무현정부는 이 유산을 계승했다. 이것은 한국정치학회를 비롯한 여러 관련 학계들의 건의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정치학자들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리하여 우선 인권에 대한 연구가 그 이전 시기에 비해 활발해졌다.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은 1999년에 『한국여성인권운동사』(한울아카데미)를 편집-출판했으며, 역사비평사는 1999년에 『서승(徐勝)의 옥중 19년: 사람의 마음은 쇠사슬로 묶을 수 없으리』를 출판했다.

“환경과 정치”라는 새로운 분야는 황태연 교수의 『환경정치학과 현대정치사상』(나남출판, 1992)을 통해 국내 정치학계에 처음 소개됐다. 그 이후 노진철 교수는 “환경문제에 대한 정치의 적응능력과 한계”(『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4호, 1997년 겨울)를 발표했으며, 한국정치학회는 1998년에 “환경문제특별학술회의”를 열고 조경근 교수 등의 논문발표를 거쳐 『환경과 정치: 낙동강 위천공단문제의 해결방안 모색』(한국정치학회, 1998)을 출판했다. 이어 김창희 교수가 『현대사회와 환경』

(삼우사, 2001)을, 박순애 교수가 “환경정책에 대한 주민의 지지와 환경친화적 행위의 결정요인”(『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1호, 2002년 봄)을, 그리고 김영래 교수가 유승익 · 이화수 · 정현옥 · 진미경 교수 등과 함께 『환경과 사회: 인간 생명 그리고 생태』(오름, 2007)를 출판했다.

XX. 여성정치학에 대한 연구

같은 배경에서, “여성과 정치”가 한국정치학계에서도 하나의 분야로 자리를 잡았다. 이 분야에서는 1989년에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를 개설한 김정숙 박사가 1990년에 『여성과 정치』(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를 출판한 데 이어 1997년에 『여성과 정치 II』(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를 편집-출판했다. 1년 뒤인 1998년에는 두 책이 출판됐다. 하나는 장공자 교수를 비롯해 송은희 · 이금순 · 이문숙 · 이승희 · 이영희 · 조기숙 교수 등 한국정치학회 내 여성정치연구위원회 여성학자들이 중심이 돼 공저한 『새로운 정치학: Gender Politics』(인간사랑, 1998)이고, 다른 하나는 이범준 교수의 정년퇴임기념으로 백경남 · 백영옥 · 서선희 · 손봉숙 · 이신화 · 이영애 · 정정숙 · 조기숙 · 지연옥 · 최민자 · 최수경 교수 등 여성학자들이 공저한 『21세기 정치와 여성』(나남출판, 1998)이다. 김원홍 교수는 이 세 책들을 종합서평한 “한국내 여성정치연구의 진단”(『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2호, 1998년 여름)을 발표했다는데, 이 서평은 이 분야에 대한 좋은 길잡이가 된다.

이 분야에서의 출판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더욱 활발해졌다. 이영애 교수는 “성정치학의 포스트 모더니즘적 조망”(『한국정치학회보』, 제30집 제3호, 1996년 가을)을 발표했고, 송은희 박사는 “한국의회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여성: 여성의 역대의 회진출 현황”(위와 같음) 및 “한국의 민주화와 여성의 정치참여 신장”(민준기 편저, 『21세기 한국의 정치』, 법문사, 2001)을 발표했으며, 김민정 교수는 “사회과학전공 여성의 사회참여 현황과 활성화 방안: 정치학전공자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1집 제4호, 1997년 겨울)를 발표한 것이다. 이영애 교수는 『국가와 성』(법문사, 1999)을, 손봉숙 교수는 『여성이 정치를 바꾼다』(대해, 2000)를 각각 출판했다.

이미경 교수와 임혜란 교수는 “한국 여성정치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2호, 2001년 여름)를 공저했으며, 김민정 · 김원홍 · 이현출 · 김

혜영 교수 등은 “한국여성유권자의 정책지향적 투표행태: 16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3호, 2003년 가을)를 공저했고, 강윤희·김경미·최정원 교수 등은 “한국 정치학에서의 성정치학(Gender Politics) 연구현황과 제언”(『한국정치학회보』, 제38집 제3호, 2004년 가을)을 공저했다. 유숙란 교수는 “광복 후 국가건설과정에서의 성불평등구조 형성: 보통선거법과 제헌헌법 작성과정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2호, 2005년 여름)를, 오미연·김기정·김민정 교수 등은 “한국정당의 여성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과 한국의 여성정치: 제15·16·17대 국회에 대한 비교분석”(위와 같음)을, 각각 출판했다.

XXI. 영토에 대한 연구

한[조선]민족의 영토에 대한, 또는 영토 “논쟁” 및 “분쟁”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사학자들과 국제법학자들 사이에서 이뤄졌다. 그런데 한[조선]민족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도전이 빈번해지면서 한국정치학계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는 학자들이 나타났다. 배진수 교수가 대표적인 보기로, 그는 “세계의 도서영유권 분쟁사례와 독도”(『국제정치논총』, 제38집 제2호, 1998년 12월)를 출판했다.

XXII. 제1차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그것이 제기한 정책적 과제들에 관한 연구

1.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

김대중정부는 출범을 전후한 시기에 “햇볕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정책을 표방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상승했으며, 그것은 정치학계에 그대로 반영됐다. 정지웅(鄭智雄)은 “분단통일국과 한반도통일 — 힘(power)과 통합이론의 관점에서 —”라는 논문으로 1997년에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영호 교수는 『통일한국의 패러다임: 평화통일강대국론』(풀빛, 1999)을, 남주홍 교수는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통일안보론 소

고』(학문사, 1999)를, 박건영 교수는 『한반도의 국제정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접근』(오름, 1999)을, 이화수 교수는 『통일한국의 정치심리학: 남북간 인성통합을 위하여』(나남출판, 1999)를, 김삼웅·민병천·양영식·이중석·장청수 등은 『남과 북 하나가 되는 길』(대한매일신보사, 1999)을²⁵⁾ 출판했다. 백영철 교수는 남의 한국통일포럼과 북의 사회정치학학회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베이징에서 공동주최한 남북해외학자통일회의에서의 논문들과 토론들을 묶어 『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해』(건국대학교출판부, 2000)를 출판했다.

김대중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2000년 6월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그리고 그것에 따른 남북공동성명 채택으로 이어졌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대표적인 저서들로 Chung-in Moon, Odd Arne Westad and Gyoo-hyong Kahng (eds.), *Ending the Cold War in Korea: Theoretic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2001)와 Byung Chul Koh (ed.), *The Korean Peninsula in Transition: The Summit and Its Aftermath* (Seo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2002)를 지적할 수 있다. 집필에 국내의 정치학자들로서는 앞의 책의 경우 김기정·박명림·박재민·이정민 교수 등이 참여했고, 뒤의 책의 경우 강원택·고현욱·김도중·박홍원·백학순·한용섭 교수 등이 참여했다.

The Economics of Korean Reunification, Vol. 5, No. 1 (Summer 2000)은 이 회담에 대한 특집을 마련했는데, 집필에 국내의 정치학자들로서는 김창수·서동만·안병준·진영재 교수 등이 참여했다. 김근식 교수는 “연합과 연방: 통일방안의 폐쇄성과 통일과정의 개방성 — 6·15공동선언 2항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제4호, 2003년 겨울)를 발표했으며, 남궁곤 교수는 “햇볕정책의 일관성과 여론분열에 관한 실증적 연구”(위와 같음)를 발표했다.

2. 한반도의 평화·안보·통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자 남한사회에서는 자연히 이른바 통일유포리아가

25) 이 책은 김대중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까지 발전시킨 대북정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이 책은 큰 흐름으로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을 옹호했다.

성장하는 가운데 통일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정치학계는 남북한의 통일에 관한 저술들을 출판했다. 우선 김승채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안적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전략적 통합’ 모델의 가능성”(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평화연구』, 제9호, 2000)을 발표했다. 이어 강종일 박사와 이재봉 교수는 『한반도의 중립화통일은 가능한가』(들녘, 2001)를 편저했으며, 심지연 교수는 『남북한통일방안의 전개와 수렴, 1948-2001: 자주화·국제화의 관점에서 본 통일방안 연구와 자료』(돌베개, 2001)를 출판했고, 김태우·신성택·김명진·김상범 박사 등은 『연구보고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신뢰구축 방안 연구』(한국국방연구원, 2003)를 작성했으며, 체제통합연구회는 김계동 교수 등의 집필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백산서당, 2005)을 편집했다. 김계동 교수는 『남북한체제통합론: 이론·역사·정책·경험』(명인문화사, 2006)을, 김재한 교수는 『DMZ평화담사: 남북평화와 남남화해를 위해』(오름, 2006)를, 백중천 교수는 『한반도평화안보론』(세종연구소, 2006)을²⁶⁾ 출판했다. 김진향(金鎭香)은 “한반도통일에 관한 담론의 분석: 남한사회의 통일담론을 중심으로”라는 학위논문으로 2006년에 경북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새롭게 전개된 한반도상황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남한사회 내부에서는 갈등이 빚어졌다. 이것을 분석한 대표적 저서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남남갈등: 진단 및 해소방안』(경남대학교출판부, 2004)이다. 집필에는 강원택·김근식·김태현·백학순·손호철·이우영·이종원·임혁백 교수 등이 참여했다.

2001년의 9·11테러는 국제정치 전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이 방면의 대표적 저술이 송대성 편저, 『주변국 안보정책과 우리의 대응전략』(세종연구소, 2003)이다. 집필에는 김호섭·이상현·이태환·홍현익 박사 등이 참여했다. 한국의 안보정책과 관련해, 백광일·남창희·이수형 교수 등은 “동북아 비대칭 안보위협과 한국의 대응방안”(『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제2호, 2003년 여름)을 발표했으며, 함택영 교수는 “한국 국방정책의 도전과 선택”(『한

26) 백중천 교수의 『한반도평화안보론』은 저자가 1985년부터 2001년까지 국내의 논문집들에 발표한 9개의 논문들을 모은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평화안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평화”라는 개념과 “안보”라는 개념을 상충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공존할 수 있는 개념으로 파악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국과 국제정치』, 제19권 제4호, 2003년 겨울)을 출판했다.

3. 남북정상회담이 제기한 국내외적 문제들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의 지위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 정치학계의 주요한 주제로 등장했다. 대조적으로, 2001년에 미국에서는 2000년의 남북공동성명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조지 W. 부시 공화당 행정부가 출범했다. 김정일정권에 대해 증오심을 품은 채 심지어 정권교체를 추구한 이 정부는 2005년에 새 임기를 시작했다. 김수암 교수의 “부시행정부의 대북인권정책: 북한인권법과 민주주의증진법을 중심으로”(『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7집 제2호, 2006년 2월)는 북한에 대한 공격적 정책을 설명했다.

부시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2000년의 남북공동성명을 자신들의 대북정책에서 핵심적 기둥으로 삼은 김대중정부 및 노무현정부와 자연히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됐다. 한국정치학계는 한미관계, 한미군사동맹, 미국의 대외정책, “반미주의”²⁷⁾ 등의 주제들에 대해, 그리고 그것들을 넘어서서 강대국들의 한반도정책에 대해, 그 이전의 시기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됐다. 한국통일전략학회의 창립(2001년)과 이 학회의 학술지 『통일전략』의 창간(2001년), 세종연구소의 『세종정책연구』의 창간(2005년), 그리고 한국세계지역학회의 연간지 *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의 창간(2006년) 등은 이러한 관심의 반영이었다.

이러한 주제들과 관련해, 구갑우 · 서대숙 · 서동만 · 이삼성 · 정성장 · 정우곤 · 최신림 · 함택영 교수 등은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남북관계의 변화와 전망』(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2)을, Hun Kyung Lee 박사는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fter the Korean Summit and Proposed Policy Direction” (*Korea Observer*, Vol. 33 No. 3,

27) 국내에서 미국에 대한 비판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그러한 흐름의 책들이 적잖게 출판됐다. 그 한 보기가 정경모(鄭敬謨), 『이제 미국이 대답할 차례다: 망명 30년, 민족주의자가 파헤치는 민족사의 현주소』(한겨레신문사, 2001)이다. 이 책은 문익환 목사의 1989년 방북,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 2000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성명, 클린턴 미행정부의 대북정책변경 등을 지지했다. 이 책은 한편으로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을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핵개발과 대미정책 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Autumn 2002)를, 송대성·이상현·홍현익 박사 등은 『남북화해시대의 주한미군』(세종연구소, 2003)을, 한용섭 교수는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박영사, 2004)와 Yong-Sup Han, *Peace and Arm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Seoul: Kyungnam University Press, 2005)를, 김윤배 교수와 김영재 교수는 Young Bae Kim and Young Jae Kim (eds.), *Peac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ew World Orders* (Seoul: Oruem Publishing House, 2005)를, 김태우 박사는 『주한미군 보내야 하나 잡아야 하나』(한국국방연구원, 2005)를, 각각 출판했다. 후자의 집필에는 이서향 교수와 이지수 교수 등이 참여했다.

주한미군지위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자연스럽게 전시작전통제권의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됐다. 이 주제에 관한 한국정치학계의 대표적인 저술은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엮음, 『전시작전통제권 오해와 진실: 전시작전통제권 논란에 대한 이해』(플래닛미디어, 2006)이다. 구본학·김동성·김태효·류재갑·송대성·송영선 교수 등이 집필에 참여했다.

한반도의 새로운 국제상황은 자연스럽게 노태우정부가 정력적으로 추진했던 북방정책을 재평가하게 만들었다. 대표적인 연구결과가 하용출 편, 『북방정책: 기원, 전개, 영향』(서울대학교출판부, 2003)이다. 이 책에는 백창재 교수와 전재성 교수 등이 집필에 참여했다. 김성철 교수는 “외교정책의 환경, 제도, 효과의 역동성: 북방정책 사례분석”(『국제정치논총』, 제40집 제3호, 2000년 11월)을 발표했다. 한반도와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국제정치학회가 2002년 8월에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여기서 발표된 논문들을 책으로 출판했다. Chul Koo Woo and Jinwoo Choi (eds.), *Korea and China in the New Global System* (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2002)이 그것이다. 김용호(金用浩)·김태호·남창희·안인해 교수 등이 집필에 참여했다.

4. 김정일정권의 장래

이 시기에도 김정일정권 및 북한의 장래는 여전히 관심을 모았다. 함택영 교수는 김동한·김정·박제훈·이종석·정성장 교수 등과 함께 『김정일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2000)을 출판했다. 이 책에 포함된 논문들은 대체로 김정일정권이 내구성을 갖고 있으며 쉽게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만학 교수는 “탈국가사회주의의 여러 길과 북한: 붕괴와 개혁”(『한국정치학회보』, 제35집 제4호, 2001년 겨울)을 통해 북한이 붕괴와 개혁의 갈림길에 서있음을 보여주었다. 정세진 교수는 “이행학적 관점에서 본 최근 북한경제변화 연구”(『국제정치논총』, 제43집 제1호, 2003년 4월)를 출판했으며, 정성장 박사는 “김정일시대 북한의 후계문제: 징후와 후계구도”(『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2호, 2005년 여름)를 출판했다.

XXIII. 제2차 북핵위기와 북한 핵실험 및 2·13합의에 관한 연구

2002년 10월에, 북한이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미국정부가 발표함으로써 이른바 제2차 북핵위기가 조성됐다. 이것을 포함한 북핵위기와 관련해, 김태현 교수는 “상호주의와 국제협력: 한반도 핵문제의 경우”(『국가전략』, 제8권 제3호, 2002년 가을)를 발표했고, 배정호·김태우·정상호 박사 등은 『미·북 핵·미사일협상 및 한반도위기설 관한 분석과 한국의 대응』(2002년도 국회 국방위원회 정책연구용역과제보고서)을 작성했으며, 윤태영 교수는 “북한 핵문제와 미국의 ‘강압외교’: 당근과 채찍 접근을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 제43집 제1호, 2003년 4월)를 발표했고, 김태우·신성택·고성윤·송영선·백승주 박사 등은 『북한 핵문제 종합적 대처방안』(한국국방연구원, 2003)을 마련했다. 홍완석 교수는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역할”(『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제2호, 2003년 여름)을 발표했으며, 이지수 교수는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정책: 공식적 차원과 새로운 시각”(『한국과 국제정치』, 제19권 제4호, 2003년 겨울)을 발표했다. 김태우 박사는 김재두 박사와 함께 『미국의 핵전략 우리도 알아야 한다』(살림, 2003)를 출판한 데 이어, 자신의 신문기고문 등을 중심으로 『북핵, 감기인가 암인가』(시대정신, 2006)를 출판했다.

한반도 상황은 북한이 2006년 10월 9일에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다시 긴장과 위기의 국면을 맞이했다. 다행히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은 2006년 2월 13일에 이른바 2·13합의를 도출했다. 2·13합의는 북핵문제의 해결과 그것에 따른 한반도의 장래를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관하게 만들었다. 『한국과

국제정치』는 제22권 제1호(2006년 봄) 전체를 “특집: 한반도 평화체제의 건설: 쟁점, 과제, 전망”에 바쳤다. 박명림 교수와 박종철 교수가 객원편집인으로 마련한 이 특집의 집필에는 김귀옥·류상영·박건영·백승주·이상현·전재성·한용섭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어 우승지 교수는 “2·13합의 이후 북한의 핵전략과 대남전략에 대한 분석”(『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9집 제1호, 2007년 8월)을 출판했다. 박건영·정육식(鄭旭湜) 지음, 『북핵, 그리고 그 이후』(폴빛, 2007)는 북한의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HEUP)과 핵실험 및 2·13합의를 깊이 있게 분석했다.

김성한 교수와 현인택 교수 및 홍규덕 교수는 변화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환경 속에서, 특히 북한의 변화 및 한미관계의 변화 속에서, 한국정부가 선택해야 할 대외정책들 및 안보정책들에 관한 국내외 학자들의 논문들로서 In-Taek Hyun, Kyudok Hong, and Sung-han Kim (eds.), *Asia-Pacific Alliances in the 21st Century* (Seoul: Oruem Publishing House, 2007)를 출판했다. 국내 학자들로서는 김병국·백진현·한승주 교수 등이 참여했다.

XXIV. 한국에서 정치학이 성장-발달한 역사에 대한 연구

2003년과 2006년은 각각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 창립 50주년의 해였다.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는 자연히 한국에서 국제정치학을 포함한 정치학이 도입되고 성장-발전한 과정에 관심을 쏟았으며, 이것은 한국에서의 정치학 발달사 또는 정치학사의 성장을 복돋우었다.

이 주제와 관련해, 정용화 교수는 “조선에서의 입헌민주주의 관념의 수용: 1880년대를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 제32집 제2호, 1998년 여름)를 발표했다. 그는 1880년대에 입헌민주주의의 관념이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수용됐다고 보았다. 이어 정영태 교수는 “정치학연구의 주요 쟁점과 그 연구현황”(한국산업사회학회 편, 『현대한국 인문사회과학 연구사』, 한울아카데미, 1994)를, 김계수 교수는 “한국정치 50년과 한국의 정치학 연구”(『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2호, 1995년 여름)를, 박상섭 교수와 하영선 교수는 “미국 국제정치학의 추세와 한국 국제정치학의 상황”(『국제정치논총』, 제35집 제1호, 1995년 12월)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는 자신의 논문집 『한국정치연구』 제7호(1997)를 “공삼 민병태 교수 20주

기 추모 특집”으로 마련했는데, 배성동·김홍우·이택휘 교수 등이 한국정치학사의 연구에 연결된 논문들을 발표했다.

구범모 교수와 백종국 교수는 “한국의 후발산업화연구에 관한 문헌비평”(『한국정치학회보』, 제24집 제2호, 1990년 여름)을 통해 일차적으로 한국의 산업화를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으로 분석한 저술들을 평가했다. 공저자들은 그러한 평가를 통해 한국정치학이 성장한 과정에서 산업화라는 주제가 지배적 담론이었던 시기를 살폈다.

이상환 교수는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에 게재된 논문들과 그 논문들의 필자들에게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계의 동향을 살핀 논문을 출판했다. “한국정치학회보와 국제정치논총에 대한 비교연구: 분석과 평가 - 미국정치학회보에 대한 분석과 그 평가기준을 토대로 -”(『국제정치논총』, 제38집 제1호, 1998년 9월)가 그것이다. 학술단체협의회는 『우리 학문 속의 미국: 미국적 학문 패러다임 이식에 대한 비판적 성찰』(한울아카데미, 2003)을 편집했는데, 정영태 교수는 “한국정치학의 미국 편향성과 한국 정치”를 발표하면서 한국 정치학이 그 발전과정에서 미국의 지원과 영향을 받은 까닭으로 미국 정치학에 “종속”됐다고 평가했다.

김운태 교수는 “21세기 한국정치연구의 회고와 전망”(『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3호, 2000년 가을)을 통해 한국에서 정치학이 발전해온 과정을 살폈다. 이호철 교수는 “한국정치학에서 정치경제연구의 쟁점과 과제”(『한국정치학회보』, 제34집 제1호, 2000년 봄)에서 정치경제적 접근방법으로 한국정치를 분석한 저술들을 살폈다. 이어, 배병삼 교수는 “한국 정치학의 기원과 정체성 탐색”(『한국정치학회보』, 제37집 제2호, 2003년 여름)에서, 손호철 교수와 김용복 교수는 “한국정치”(김세균·박찬욱·백창재 편, 『정치학의 대상과 방법』(박영사, 2005)에서, 각각 한국정치연구의 추이와 경향을 분석했다.

이 주제와 관련해, 한국정치학회는 『한국의 정치학: 현황과 전망』(법문사, 1997)과 『한국정치학 50년: 정치사상과 최근 연구분야를 중심으로』(한울: 2001) 및 『한국정치학 50년사: 1953년-2003년』(한국정치학회, 2003)를 잇달아 출판했다. 첫 번째 책에 손호철 교수는 “한국정치론”을 발표했고, 두 번째 책에 신복룡 교수는 “한국정치사학사”를 발표했으며, 세 번째 책에 한배호·이정복·박충석·임효선·손호철·정희채·김용구·백완기 교수 등이 “한국정치학사”라는 큰 제목 아래 각각 자신의 분야에 대한 논문들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는 2005년 12월 6일에 연구소 설립 25주년 기념 학술회의 “한국현대사회과학사의 동향과 쟁점: 역사적 접근을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여기서 서규환 교수 등이 한국정치학사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했다.

XXV. 맺음말

이상에서 1993년 이후 한국 정치학계가 한국학 분야에서 쌓아올린 연구의 동향들과 특징들을 살폈다. 여기서 나타난 몇 가지 공통점들을 지적하기로 한다.

첫째, 주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이것을 “다양성의 심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변화를 반영한다. 민주화·산업화·국제화·세계화 등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선진국가들이 보여준 많은 현상들 그리고 인류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한국에 예외 없이 나타남에 따라 정치학도들의 연구 주제가 다양해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환경정치학과 여성정치학을 비롯한 몇몇 분야들에 대한 연구는 개척적 단계에 들어서 있을 뿐이라는 평을 덧붙일 수 있다.

둘째, 연구가 더욱 전문화되고 있다. 이것을 “전문성의 심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점은 우선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 안에서 여러 크고 작은 연구회들이 계속해서 발족하고 있는 현상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또 적잖은 저술들이 국제학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높은 전문성을 과시하고 있는 점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제 한국정치학계는 큰 주제 아래의 포괄적 또는 교과서적 저술의 저술들보다 아주 작은 주제 아래의 상세한 저술의 저술들을 훨씬 많이 내놓고 있다.

셋째, 이것은 달리 표현해, 한국정치학계의 학문적 수준이 세계적 수준에 근접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한국정치학계는 2000년에 김달중 교수를 세계정치학회(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IPSA) 회장으로 배출했으며, 2004년에 동아시아의 지도적 정치학자들과 함께 Asian Consortium for Political Research를 발족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안청시 교수와 박찬욱 교수가 이 학회의 학술지 *Political Science in Asia* (PSA)의 편집을 책임지고 있다. 문정인 교수는 2006년에 서방세계의 저명한 정치가들 및 정치학자들과 함께 The East Asia Foundation을 창립했으며 기관학술지로 *Global Asia*를 창간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정치학회는 2003

년부터 기존의 계간지 『한국정치학회보』에 추가해 연간지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를 발행하고 있다.

넷째, 시대적 및 국가적 과제들에 진지하게 대응해 왔다. 시대와 국가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깊이 있게 접근해 해답을 얻으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왔다는 뜻이다. 이것은 국내적으로는 민주화의 진행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탈냉전화의 진행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학제적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다. 그 대표적 보기가 국제정치경제학적 분석이다. 예컨대, 외환-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를 대상으로 삼은 연구들은 전통적인 정치학의 범위를 훨씬 벗어났으며 국제정치학 및 국제경제학과 사실상 완전히 혼합된 상태에서 이뤄졌다.

ABSTRACT ■ ■

Trends and Characteristics in Korean Studies in Political Science since 1993

Hakjoon Kim | The Dong-A Ilbo Company

This paper is basically about the literature survey in Korean studies in political science. This paper has reviewed articles and books published since the commencement of th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 in February 1993. As a result of the literature survey,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research is becoming more diversified. Second, research is becoming more specialized. Third, the level of research used by Korean Political Science academia has nearly reached the global level. Fourth, South Korean political scientists have responded to the demand of the generational and national agenda. Fifth, inter-disciplinary research has become more active.

Keywords: Korean politics, Party politics, Congressional politics, Political communication, Democratization,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nd unification, North-South Korean summit, Internal politics and external relations of North Korea, Three-year history of the two Koreas since Liberation, History of Korean political science, Labor politics.